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학석사학위논문

돌과 선으로 은유한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전공

티파니 클레본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제작한 본인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타인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한국인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예술가가 개개인의 초상화를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묘사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특징을 인지하는 것이다. 대상을 선정할 때는 예술가가 선택한 그 대상과 표현하려는 주제가 다른 예술가들의 그것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집중해야만 한다. 그 주제의 혼을 적절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그리려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서양예술에서는 보통 대상의 얼굴에 대한 연구나 다른 세밀한 특징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초상화에서 얼굴 표정과 개인의 스타일은 대상의 특징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는데 중심을 두는 서양 문화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들을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을 타인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문화에서는 개인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기보다 한 사람이 타인과 갖는 관계에 더 중심을 둔다. 그래서 한국인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국인을 특징짓는 그 관계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가진 여러 종류의 관계 중에 하나는 자연과 함께하는 관계이다. 사실 인류가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아시아 문화권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문화와 함께 종교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에서는 아직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힘은 한국인이 풍경화를 감상하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할 때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 깊고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압도되어 그저 작품을 한없이 바라보기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연은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관계는 그들이 타인들과 맺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한국인들의 전 삶에 걸쳐 나타나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반응하고 적응하여 살아가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관계는 한국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들 관계 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가족관계이다. 가족은 삶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집단이다. 가족관계와 더불어, 친구관계, 동료와의 관계, 연배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등 많은 관계들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 관계는 한국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상호의존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서양 사회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입각해서 정의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양인들은 자신의 개성에 의해 정의된다. 미국 출신의 본인은 한국생활을 시작하고 한국인과 교류하면서 각 관계마다 꼭 따라야 하는 특별한 규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 각각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인간관계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한국사회의 인간관계의 특징을 연구해보는 것이 한국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 연구논문에서 본인의 작품들은 한국의 사회적 관계형성 방식에 대해 알기 위해 한국사람들이 주변과 맺는 관계의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 표현방식으로는 동양화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선의 흐름으로 묘사했다. 선들은 한국인들의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 반복적인 기법으로 표현되었고 그 관계들이 얼마나 강력한 지를 강조한다.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에 중점을 두는 대신, 그것을 자연의 한 부분인 돌의 형상에 비유했다. 이 돌의 형상은 한국인들의 힘과 용기를 대표한다. 동양화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재료인 먹을 사용하여 돌의 형상과, 선의 미학,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인 다양한 관계들이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

이 논문을 완성한 후에, 앞으로의 본인의 작업세계를 심화시키고 시각적 메시지의 발전을 위한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그에 따른 작품을 본인의 고국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 꾸준히 발표함으로써, 한국인들이 타인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특징이 다른 문화권에 알려질 것이고, 한국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화의 교류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 것이다.

주요어 : 관계, 상호의존, 집단주의, 상하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유교사상, 바위, 선

학번 : 2013-23885

목차

국문초록	i
목차	iii
I. 머리말	1
II.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성	3
1. 상호의존성	3
2. 집단주의	10
3. 상하관계	17
III.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상징적 표현	21
1. 돌의 상징적 표현	21
2. 선의 상징적 표현	28
IV. 조형적 특성 및 제작 과정	33
1. 수묵	33
2. 평면성	34
3. 스밈과 엇힘	35
4. 제작 과정	36
V. 맺음말	42
참고문헌	46
도판목록	48
작품도판	50
ABSTRACT	69

I. 머리말

인류는 예술을 역사적 사건과 그 시대의 문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이는 문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우 독특한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수천 년 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왔다. 과학자들, 고고학자들, 예술역사가들 등 셀 수 없이 많은 개개인들은 고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을 활용한다. 그들의 신념, 실천, 생각들은 계속 발전한다. 이는 고대 미술뿐만이 아니라 현대 미술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술사를 통해 볼 때, 과거 서양미술은 대체로 인물화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고대 미술가들은 사실주의적 표현기법을 연마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인체 해부학과 얼굴에서 표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표정들을 연구했고 신체 움직임을 공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모델로 사용하기도 했다. 많은 화가들은 색을 섞는 방법이나 표현기법을 배우기 위해 교육기관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인물화 표현을 위한 것이었다.

리얼리즘과 완벽한 초상화에 중심을 두는 경향은 서양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보여준다. 서양미술가들이 많은 시간을 기법을 연마하는데 보내는 이유는 대상의 특징을 더 쉽고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서양 미술가들은 그들이 고른 대상의 고유한 특징을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대상이 가진 개성과 특징을 잘 파악하는 일은 서양문화권에서는 그것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행위이다. 서양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득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렇지만 동양의 경우에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개인보다는 관계에 중심을 둔다. 예를 들면, 과거의 동양화가들은 자연환경을 소재로 하여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예술작품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은 자세한 묘사력에 의해 판단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작품 능력은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감정에 의해 판단되었다. 자신이 느낀 것을 자연에 기대어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바로 동양미술가들의 목표였다. 이 능력은 작가가 자연과의 적절한 관계를 파악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작가는 자연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경험의 결과를 대작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작가와 그가 그려낸 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고전 문인화가의 그림에서 잘 전달하고자 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였다. 이는 한국의 그림만이 아닌, 한국 사람들에게서도 드러난다. 서양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한국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를 더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동양화를 공부한 미국인이, 개인의 디테일 중심의 조형 사고를 넘어서 한국의 상호관계 중심의 사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시각적인 표현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수많은 조사, 생각, 본인과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대한 진전 이후, 본인은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작품에 디테일 또한 표현하고 싶었다. 본인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발견한 관계를 근거로 동양화 기법 특유의 번짐과 스밈을 이용하여 작품 속에 디테일한 표현을 하고자 했다.

본인이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표현하려는 바는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본인이 느낀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전 세계 모두에게 가족과 친구, 동료들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방식에는 고유한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다. 2009년 한국에 처음 온 이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을 쌓으며 느끼고 배운 것들을 작품에 담고 싶었다.

두 번째는 한국을 비롯한 동양화가들이 어째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그런 연구가 왜 화가에게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는지 이해하고 내 작품에 적용해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고대 동양화가들이 자신의 작업세계를 발전시킨 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경험을 하기 위해 본인도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까이에서 관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연결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주로 인물을 그려왔던 본인은 한국 사람들과 직장, 종교, 학교, 그 밖의 사적인 경로로 친분을 맺으며 한국에서 인간관계를 아주 가깝게 보고 듣고 행하고 느끼며 쌓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보아야만 했다.

동양회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입각하여 본인이 느낀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II.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성

서양문화에서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그들을 남들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다. 그러나 한국 문화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라는 관계에 상당한 초점을 둔다. 그리하여 관계가 그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은 세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연구했다. 이 특징은 바로 상호의존성, 집단주의, 그리고 상하관계이다.

1. 상호의존성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상호의존성이다. 상호의존성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 의존하고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개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교에서의 상호의존성, 가족 간의 상호의존성, 한국인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서양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살펴봐야한다.

1) 유교에서의 상호의존성

유교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믿음은 삼강오륜에도 나타나듯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유교적 접근은 1) 정중함, 신중함, 2) 조화 촉진, 3) 사회 내 질서 확립, 4)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은혜 또는 상호의존성과 호혜주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이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¹ 사전에 따르면, 이 상호의존성의 정확한 정의는 “서로 연결되도록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²

이러한 유교 가치를 따르는 것은 구체적인 의사 소통 관행을 유도한다.³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 따라 그룹 내 유대감 강화 및 그룹 간 유대 강화는 정보 교환 및 설득을 위한 소통보다 더 중요하다.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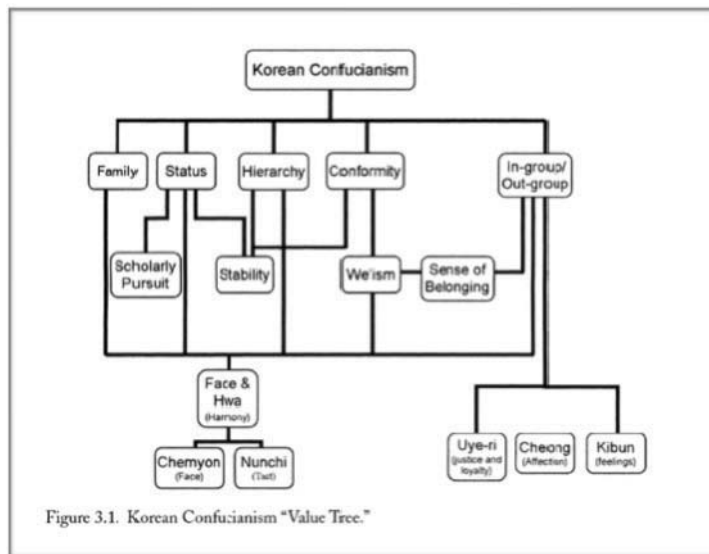
¹ Shim, T.Y., Kim, M.S., & Martin J.N. (2008), Changing Korea: Understanding Culture and Communication (Vol.10 / Critic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Peter Lang, pp. 27.

² interdependence 2017, Merriam-Webster.com, Retrieved August 20, 2017,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interdependence>.

³ Miike, Y. (2007), An Asiatic reflection on Eurocentric bias in communication theory, *Communication Monographs*, 74(2), pp.272-278.

말해, 의사 소통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의존 상태에 있으면서 항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계에 대한 조화와 신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간접적인 의사 소통을 의미하며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대화 속에서의 침묵의 미덕은 종종 겸양과 겸손의 표시로 나타난다.⁴

유교가 한국인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정의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가치의 토대가 되는 한국 유교의 핵심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1】 이러한 핵심 가치는 가족, 지위, 계층, 적합성 및 그룹 내 / 그룹 외이다. 가장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나온다.



【도판 1】 <Figure 3.1>, Korean Confucianism Diagram

유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체계를 구성하는 관계 철학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며 “나”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위치하는 상황에 달려 있다.⁵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 발견되는 상호의존성이 왜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한다.

2) 가족 간의 상호의존성

『Transformation of family I/ideology in upper-middle-class families in urban South Korea』라는 책에 가족 관계의 깊이에 대한 설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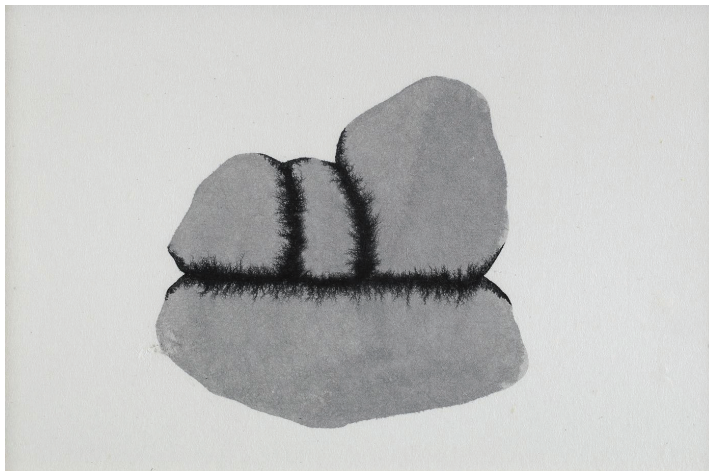
⁴ Kim, S. (2003), Korean cultural codes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6(1), pp.93-114.

⁵ Shim, T.Y., Kim, M.S., & Martin J.N. (2008), Ibid, pp.55.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족이란 상호간의 보살핌과 보호를 의미한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의지할 마지막 장소였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가족생활의 즐거움과 관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가족은 한국에서 사회 생활의 기본 요소이며, 그 영속은 가부장적 유교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유교의 가부장제 가정에서 엔티티(entity)로서의 가족은 개인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가족 그룹은 씨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가족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통적인 유교 제도 내에서 가족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이다.⁶

유교 문화의 핵심골자는 개인이 가족 구성원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강한 가족 중심 문화권 중 하나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의 개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가족과 분리 될 수 없으며, 가족 구성원의 성취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한국인 가족은 혈연관계가 강하며 가족들 사이에 집단적 충성이 기대된다.⁷ 따라서 한국인의 가족 관계에서 발견되는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국인을 이해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가족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가 문자 그대로 나타낸다.



【도판 2】 【작품 10】 가족 07,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박한나(Hannah Park) 작가는 한국의 ‘효녀 심청’이라는 동화를 언급했다. 이야기는 눈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희생시킨 어린 딸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국인들은 가족(부모와 자녀)을 ‘자신의 삶을 헌신 할 수

⁶ Kim, M.H. (1993), Transformation of family I/ideology in upper-middle-class families in urban South Korea, *Ethnology*, 32(1), pp.69-86.

⁷ Shim, T.Y., Kim, M.S., & Martin J.N. (2008), Ibid, pp.55-56.

있는 공통의 운명에 묶여있다’ 고 생각한다.

2005 년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본 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족주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가족에 대한 헌신과 의무는 연령, 성별, 사회 계급 및 계급에 관계없이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침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강한 공동체 윤리를 통해 한국인을 하나로 묶는 매체로 여겨졌다.” 조선 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전통 가정의 특징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조화로운 가정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낸다고 한다. 즉 가족의 평화는 한 나라의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삼강오륜에 입각한 가족과 가정생활은 유교 윤리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⁸ 그래서 한국 가정 단위의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실제로 사회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도판 2】

3) 상호의존성과 한국인의 정(情)

한국의 가족 구조에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혹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갑과 을이라는 독립 개체의 선형적인 관계로 보기는 힘들다. 한국 가족에서의 개인은 늘 가족 안에서 의미가 있다. 오히려 개인을 가족이라는 커다란 몸의 팔다리 같은 상호의존적 개체로 이해해야 한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팔, 다리, 허리, 머리,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내장기관 따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강은 몸 중에 어떤 기관이 특별히 건강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상호의존적 작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수영은 자신의 저서 『한국인의 관계심리학』에서 상호의존성의 깊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서양에서는 상처 한 곳에 집중하는 수술이 발달한 반면, 동양에서는 침으로 혈맥 전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관계를 바라보는 문화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손목을 다쳐서 한의원에 가면 아픈 손목에는 침을 안놓고 팔꿈치나 심지어는 발목에 침을 놓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전체 균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호의존적인 시각이다.⁹

한국 문화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끈은 가족이나 인척관계이다. 가족 구성원 앞에 붙는 “미우나 고우나”란 말처럼, 개인 감정과 갈등 상황은 늘 뒷전이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끈이 약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 관계의 끈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미우나 고우나” 정도가 아니라, “죽으나 사나”이다. 또한 한국의 가족 정서를 표현하는 말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다.¹⁰ 가족으로서 기본적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모든 한국인의 가슴에

⁸ Park, H. (2009), *Korean Culture for Curious New Comers*, Pagjong Press, pp.64-66.

⁹ 권수영 (1989),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살림, 23 쪽.

¹⁰ 앞 책, 23 쪽.

발견되는 용어 정리로 이어지며 또한 상호의존성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들이 공유하는 그 정서는 서구인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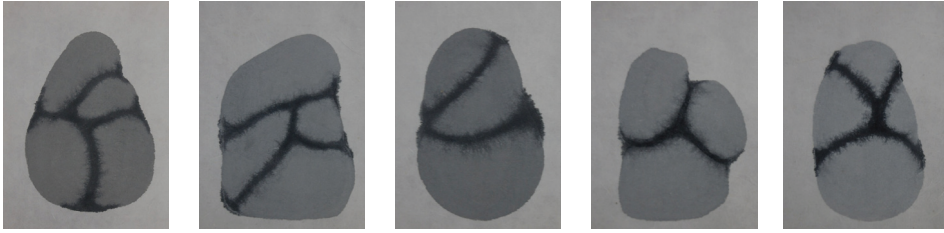
예를 들면, 한국인의 고유 정서인 “정(情)”을 서양인에게 설명하기란 아주 힘들다. 서양의 관점으로 “정”을 “친절하고 애뜻한 감정” 혹은 “끈끈한, 호감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감정”이라고 옮기는데, 딱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이라는 정서야 말로 “피”의 관계로 분석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감정이다. 정은 한국인의 가족 관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어머니의 정은 가장 강하다. 【도판 3】 타인에게 정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은 무엇인가? 한국인은 언제 어떻게 왜 정이 드는가? 사회심리학자 한규석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도판 3】 【작품 6】
엄마,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정은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며, 정 들고 안 들고는 상대방과 얼마나 한 가족 같은 행동을 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그릇에 수저를 같이 담그고, 뚜렷한 목적 없이도 같이 빈둥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목욕을 같이 하고, 흥허물 없이 다 터놓고 지내는 사람과 정이 든다.¹¹

¹¹ 앞 책, 43-44 쪽.



【도판 4】 【작품 8】 동호회, 순지에 먹과 물감, 11.5x9cm (한 부분), 2015

완전한 남인데도 정이 많이 든 사람은 마치 가족 구성원 같은 “우리”로 편입된다. 한국인에게 “우리”라는 어휘가 갖는 사회심리적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정”이다. 오랜 시간 정을 쌓지 않고는 우리가 될 수 없다. 서로 남인 이웃이 사촌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정”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인의 가족주의적인 관계성은 직장이나 여러 사회단체, 정치권 등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 심리가 된다.¹² 이 진리는 본인의 ‘동호회’ 시리즈에서 볼 수 있다. 사회의 다양한 집단 내에 때로는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은 가족에서 발견되는 상호의존성을 직접 반영한다. 【도판 4】

4) 서양 문화와 비교

가족 관계의 상호 의존성은 한국 문화에서 매우 분명하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 문화와 한국 관계의 측면이 일부 예술가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상호의존성 때문에 가족 내에서 느끼는 효도에 대해 말하면서, 박한나(Hannah Park)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부모와 자녀가 설정한 권리 사이의 관계의 관점에서, 효행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구조로 해석되며, 자녀가 나이가 들면 돌보는 구조로 해석된다. 즉,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체로 남한의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 때까지 남은 평생 동안 그들의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서구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가족과 독립적이며 대학에 입학 할 때부터 벌어들인 돈으로 학비를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서구 사람들은 노인 부모를 돌볼 책임이 거의 없다. 대신에 정부는 사회 복지 수준의 고령화

¹² 앞 책, 43-44 쪽.

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후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가족의 특성에 있어서 한국인을 부러워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3세대의 가족이 함께 살며 서로를 사랑한다. 이것은 “이상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¹³

물론 이것은 박한나(Hannah Park)의 의견이며 이렇게 믿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생활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인 가정의 구성원은 노인에서 젊은이들까지 생존을 위해서 의존한다. 젊은이들은 특정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에 의존하고 노인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서양 문화는 성인이 된 이후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한국인들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가족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상호의존성의 일관된 순환이다.

어떤 서양인들은 이 상호의존성을 가족 구성원의 독립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젊은 세대가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인은 이 관계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본다. 권수영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에 근거한 집단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서양의 선형적 억압 구조를 가지고, 상호의존적인 팔다리와 몸 간의 억압에 대해 논한다고 가정해보자. 내 신체의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억압할 수 있을까? 내 팔이 내 다리를 어떻게 억압할까? 내 감각기관이 어떻게 내장기관을 억압할 수 있을까? 내 몸 전체를 통제할 것 같은 뇌도 사실은 내 몸을 완전하게 억압하지는 못한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람은 자신의 목을 졸라 죽을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바로 몸 전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힘껏 손에 힘을 주어 자신의 목을 조르려고 해도, 죽지 않을 만큼만 힘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선형적이 아닌, 방사형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입체형 구조이다. 몸 안에서 항상 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은 억압 혹은 종속의 선형적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전체 균형을 위한 상호보완, 혹은 상호 통제를 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몸 안에서 한 곳을 억압하는 원인 한 가지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¹⁴

¹³ Park, H. (2009), Ibid, pp.64-66.

¹⁴ 권수영 (1989), 앞 책, 23 쪽.

2. 집단주의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강한 집단주의 문화의 보유국으로 알려져 왔다.”¹⁵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룹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은 같은 학교, 같은 이웃, 같은 회사, 같은 취미, 그리고 같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그룹을 만든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항상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intersection)을 찾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주의”는 한국 문화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보다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 예로, 한국인들은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회사”라고 말하며, 심지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아내”라고 말한다.

1) 사회관계에서의 집단주의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 집단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세 가지 측면의 집단주의가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사회 관계의 유지와 조화의 지향이다. 두 번째 측면은 자기 억제와 자기의 숨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은 단점 수용과 자기 개선의 목적이다.¹⁶

i. 사회 관계의 유지와 조화의 지향

첫 번째 측면, 사회 관계의 유지와 조화의 지향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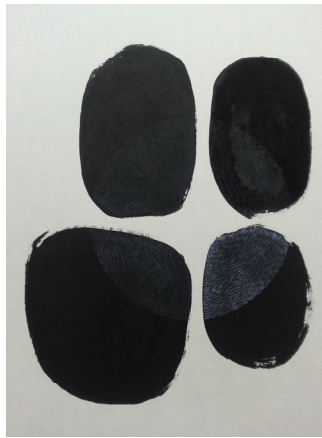
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집단주의의 성향이 강한 한국인들은 주의의 초점이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밖의 타인들과의 관계 및 상황에 쏠려 있다. 이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안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바로 이렇게 주의의 초점이 사회관계에 모이게 된다는 사실이 한국인의 심성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제1의 개념 틀이다. 주의의 초점이 자기 외적인 관계로 집중되는 이러한 경향은 인지 과정에서 상황 단서에 민감한 경향을 낳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인들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성격-감정-욕구 같은 행위자의 내적 속성보다는 상황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상황주의)을 보이게 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타인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평가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¹⁵ 나은영 (2013), 한국인은 누구인가: 38 가지 코드로 읽는 우리의 정체성, 21 세기북스, 154 쪽.

¹⁶ 앞 책, 164 쪽.

한국에서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대인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¹⁷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 이 진실은 “차이의 관계”라는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난다. 【도판 5】 이 작품에서 본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 같은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계망과는 다른 그 차이점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도판 5】 【작품 4】 차이에 의한 관계 01, 순지에 먹과 물감, 44x34cm,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은 자기를 일차적인 참조 대상으로 하는 ‘자부심’과 같은 자기중심적 정서보다는 관계 속의 타인을 일차적인 참조 대상으로 하는 ‘공감’ 등의 타인 중심적 정서에 더 민감하다. 또한 한국의 문화권에서 ‘나’와 ‘너’는 ‘우리’라는 정(情)의 공간 속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단위로 여겨진다.¹⁸ 이렇게 한국인에게서 타인과의 관계 지향은 정과 인정(人情)을 중시하는 현상으로 드러난다.¹⁹ 이것이 정(情)의 개념이 한국 문화에서 그토록 의미심장한 이유이다. 사전에서 직접 번역하면 “느낌, 사랑, 정서, 열정 또는 동정”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¹⁷ 앞 책, 163-164 쪽.

¹⁸ 이수원 (1984), 한국인의 인간관계 구조와 정, (교육논총),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95-125 쪽; 이수원 (1987),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정 공간, 1987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심리학회, 131-142 쪽.

¹⁹ 이수원 (1987), 앞책, 137 쪽.

두 명의 의사가 작성한 보고에는 “위치”라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²⁰ 그들은 “정”은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뿐 아니라 바깥에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정(情)의 위치는 개인들 사이에 있다. 감정을 개인의 마음 바깥에 앉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집단 감정이라는 관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나는 정(情)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정(情)이 든다”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정이 든다. 다소 모호한 설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문화의 집단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으로 삼는 개인 지향적인 이기적 동기보다는 관계 속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우선시하는 도덕적 동기를 중시 하게 되며, 또한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확인 시키려는 동기와 목적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기가 바로 타인 지향적 동기다. 한국인들이 흔히 보이는 의례적인 언행, 체면치레, 같은 편임을 확인시키려는 행동, 웅석, 자기 비하적 겸손, 눈치 보기 등은 모두 이러한 타인 지향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²¹ 즉 그룹의 조화와 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뭔가 하기 전에 그룹의 의견과 동기를 먼저 살펴보고 크게 고려한다.

집단적 자아(collective self)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아닌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반영한다. 예를 들어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집단주의 문화 속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외향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으로서의 자기의 개념을 형성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 속 자아의 개념은 집단 속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집단 속에서의 자아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나는 가족의 구성원”이며, “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며, “나는 **화사의 직원이다” 등 집단과 관련 지어 자신을 정의 내린다. 따라서 집단의 규범과 질서 체계의 준수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보다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²²

따라서 그룹에 기반을 둔 사람에 대한 이 엄격한 초점은 한국인만의

²⁰ Chung, C. K., & Cho, S. (2012), Significance of “Jeong” in Korean culture and psychotherapy, *Harbor-UCLA Medical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prcp.org/publications/sig.pdf>.

²¹ 최상진-이요행 (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1995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3 쪽.

²² 소원근 (2013), 공익산출이론과 동북아시아 집단주의 문화,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동북아문화연구 제 37 집, 563-584 쪽.

고유한 행동양식들이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된다. 집단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삶의 중심적인 힘이자 중점이다. 주요 생각은 그룹이 살아남아야 하며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은 그룹의 이익을 위해 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면은 집단주의의 두 번째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ii. 자기 억제와 자기의 숨결

두 번째 측면은 자기 억제와 자기의 숨결이다. “유학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집단의 조화와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나 바람 및 감정의 표출은 대인 관계의 조화를 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통제의 대상을 외적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찾음으로써, 자기 억제와 자기 은폐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추론이 한국인의 심성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제 2의 개념 틀이다.”²³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그 그룹이 나아가고 있는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감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것 또는 낮은 자기 가치의 징조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동기, 욕망 및 감정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집단과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²⁴을 대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가족이나 학교, 회사, 국가 등의 어떠한 집단 내에서도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인 목표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과 전체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25 26} 개인 감정을 억제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작업 환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다. 회사의 직원은 그룹 또는 전체로 간주되며 각 구성원은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따라서 그룹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한 가지를 하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전체 그룹이 유익하고 조화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공적 정향의 전문성 이론에서는 집단들이 다양한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²³ 나은영 (2013), 앞 책, 165 쪽.

²⁴ 동북아는 지리적으로는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문화적으로는 한자와 유교를 공유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²⁵ 동북아 집단주의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혈연이나 가문의식, 지역적 협업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에서 비롯된 지역의식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²⁶ 소원근 (2013), 앞 책, 563-584 쪽.

간주함으로써,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²⁷

한 예로, 직장 회식에서 메뉴선택의 욕구가 개별적으로 다르더라도 모두가 관리자를 비롯한 다수의 선택에 따른다. 그룹에서 지도자 또는 관리자는 그룹의 동기와 움직임에 대한 분위기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스스로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경향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양보하고 협동하며, 겸양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특징을 유발한다. 그리하여 성취 결과와 관련해 자기 성공에 대해서는 좋은 운 같은 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겸양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은 정서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특히 대인 관계의 조화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는 정서(분노 등)의 경우에 심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은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신체질환인 “화병(火病)”으로 발전하기도 한다.²⁸ 또한 희로애락(喜怒哀樂)과 같은 정서의 경우에도 너무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²⁹

간단히 말해서, 두 번째 측면의 핵심은 그룹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불편함이나 분노의 느낌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집단 관계 또는 쌍방관계가 깨지거나 긴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룹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과 모든 것을 똑같이 유지하다 보면 일반적인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i. 단점 수용과 자기 개선의 목적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측면은 단점 수용과 자기 개선의 목적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연계성이 문화적 명제이므로 타인에의 배려와 조화의 유지를 강조하게 된다. 그 결과 대인 관계의 조화를 해칠 수 있는 자기의 부정적 측면을 찾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기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보다 앞서게 되어, 끝내는 ‘타인을 자신 속에 포괄하는’³⁰ 자기 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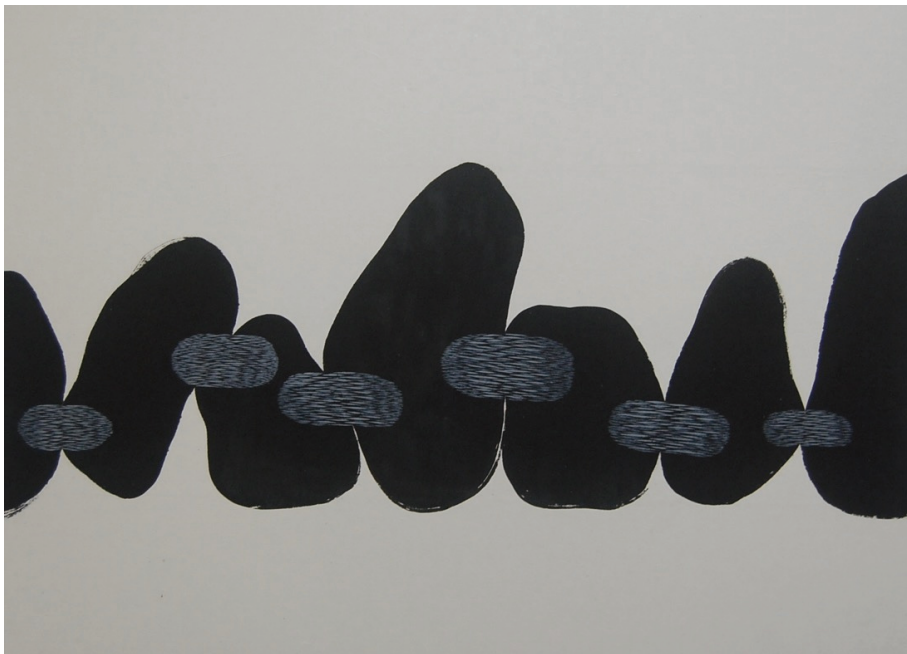
²⁷ Redford, E.S. (1958), *Ideal and prac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Alabama Press.

²⁸ 최상진-이요행 (1995), 앞 책, 327-338 쪽.

²⁹ 소원근 (2013), 앞 책, 563-584 쪽.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측면과 행동은 그룹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더 잘하면 전체 그룹도 향상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결과적으로 각 개인은 자기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발휘한다.

집단주의의 이러한 측면은 “경쟁”이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다. 【도판 6】 한국 사회에는 일정한 경쟁의식이 있다. 각 개인은 그들이 가장 약한 링크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향은 본질적으로 그룹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 한국은 더 빨리 발전했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은 약한 레벨에 속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모두가 본질적으로 더 나은 완전체 그룹뿐만 아니라 완전체적인 국가도 만들려고 노력했다.



【도판 6】 【작품 7】 경쟁, 순지에 먹과 물감, 80x110cm, 2015

³⁰ Aron, A., & Aron, E.N. (1986), *Love and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pp.19.

³¹ 나은영 (2013), 앞 책, 167 쪽.

2) 서양과의 비교

한국 문화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본인은 나의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집단주의의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점을 보게 되었다. 여러 다양한 문화적 성향 속에서 특히 전반적인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북아 지역의 집단주의는 가장 명확하게 대비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³² 한국 문화는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서양 문화는 주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주의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 봐야한다.

『한국인은 누구인가: 38 가지 코드로 읽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했다. “집단주의 사회는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와 가족 통합, 내집단 성원들과의 연계성 및 상호의존성, 내집단에 대한 관심-배려-헌신이 강조되는 사회다. 반면 개인주의 사회는 내가 소속된 집단과의 거리 두기, 자기 이익 추구와 경쟁 및 개인의 독립성-독특성이 강조되는 사회다.”³³

그래서 이 저자에 따르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련성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맺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 내집단(內集團)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는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서양은 완전히 반대이다. 초점은 자신과 그룹을 구별하는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똑같이 만드는 것 대신에 유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련시키고 판단하는지 설명함으로써 계속되었다. 서구와 동아시아 사회는 그 역사적 배경과 지배적인 사상이 다른 만큼 인간을 파악하는 관점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바로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가 서구와 동아시아 사회에 각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가 조성되도록 한 직접적인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문화권의 인간관의 차이는 인간의 존재 의의의 출처,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유한 특성 및 인간의 변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수렴하여 이해할 수 있다.³⁴ 다시 말해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는지를 자신이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한국인과 서양인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것을 의미한다.

³² 소원근 (2013), 앞 책, 563-584 쪽.

³³ 나은영 (2013), 앞 책, 155 쪽.

³⁴ 이에 대해서는 졸저(조궁호,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 - 서 비교: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 사상적 배경: 심리학적 접근』, 『선진 유학 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사회관계론의 동 - 서 비교: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I』) 참조.

그래서 “자기”와 “나”의 의미를 보았을 때, 다시 한 번 어떻게 관점이 다른지를 볼 수 있다. “서양인의 ‘자기’는 서양에서 규정된 ‘나’와 동일시된다. 모든 개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 스스로 지가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나’, 즉 ‘자기’가 그 자체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인의 ‘자기’는 ‘나의 마음’을 뜻한다. ‘마음’은 뜻, 정신, 생각 등을 포함하는 정신세계의 내용과 기능을 말하며 한국인에게 자기계발이란 곧 심성 계발을 의미하는 연관성을 지닌다. 그리고 한국인의 자기계발, 즉 마음은 개인적이라기보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질서와 목표의 합일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자기’는 개인 중심의 실재보다는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이상적인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서구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은 그들 자신을 독특하고, 개성있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제공 할 수 없는 개인만의 독특한 차별점을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 문화에서 한국인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유사점을 찾는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3. 상하관계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달라지는 유교적 계층적 사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여기에는 존중 내지 존경 또는 대화에서 사용할 언어와 관련하여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아는 것도 포함된다.³⁵ 한국인은 인간관계를 시작함에 있어 대개 이름으로 누군가를 부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나이나 직함을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호칭을 골라 다른 사람들을 부른다. 이것은 한국의 언어 방식과 언어 습관이다.³⁶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비롯된 인간관계 방식은 한국어,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의사 소통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³⁷ 유교 유산은 언어, 학교, 가정, 쇼핑 및 비즈니스 조직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계층 구조의

³⁵ Vegdahl, S., & Hur, B. (2008), *Culture Shock! Korea: A Survival Guide to Customs and Etiquette*, Marshall Cavendish International Asia Pte. Ltd, pp.205.

³⁶ Park, H. (2009), Ibid, pp.66-68.

³⁷ Yum, J.O. (1988),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East Asia, *Communication Monographs*, 55(4), 374-388.

Song, Y.J., Hale, C.L., & Rao, N. (2005), The South Korean Chief Negotiator: Balancing Traditional Values and Contemporary Business Pract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5(3), pp.313-328.

시스템에서 종종 볼 수 있다.³⁸

1) 가정에서의 상하관계

전통적인 한국인 가정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 여성은 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열등의 공손성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은 권위와 연공의 규칙이다.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에서 아버지는 수직 질서와 가족의 최상위의 권력자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결정한다. 효는 아들과 딸이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나이를 우선시 하는 연공 서열 규칙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또 다른 원칙이다.³⁹

한국 문화에 익숙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면 버릇없다고 느낀다. 성숙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대꾸로 받아들이고. 어른에게 화내는 아이는 무조건 나쁜 아이다. 어른이 화를 낸다고 무조건 나쁜 어른이라고 몰아붙이지 않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감정적 아이(emotional kid)”를 나쁜 아이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로 취급하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묶어 놓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⁴⁰

2)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이러한 계층적 관계는 한국의 직장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말쑥에 복종해야하며,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을 시작하거나 주도권을 쥔취하기를 실제로 권장하지는 않는다.⁴¹ 이런 이유로 어린아이와 노인들 사이에는 특별한 권력 구성이 있고, 이것은 후에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로 이어진다.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은 고용주가, 순종적 아들 역할은 부하직원으로 전치된다.⁴² 가부장적인 리더십 문화는 지도자에게 많은 권력과 위대한 권위를

³⁸ Jouhki, J., & Paaso, M. (2011), How Expatriates from Finland Experience Hierarchy in a Korean Working Environ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cultural Studies*, www.academia.edu/169992/Finns_Making_Sense_of_Korean_Hierarchy_How_Expatriates_from_Finland_Experience_Hierarchy_in_a_Korean_Working_Environment

³⁹ Shim, T.Y., Kim, M.S., & Martin J.N. (2008), Ibid, pp.56.

⁴⁰ 권수영 (1989), 앞 책, 20-21 쪽.

⁴¹ Park, M.S., & Kim, M.S. (1992), Communication Practices in Korea, *Communication Quarterly*, 40(4), pp.399-400.

⁴² Hofstede, G. F.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u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Nations*, Thousand Oaks: Sage, pp.102-107.

부여하지만, 반면에 그에게 그의 가족이나 부하를 돌볼 중대한 의무를 부여한다.⁴³

한국 기업은 이 사회 시스템의 일부이며 개인의 정체성은 특정 조직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기업에서 사원의 직급을 아는 것은 그 사람과 상호 작용할 때 중요하다. 40 대 후반의 사람들은 위치와 계층 구조에 더 민감한 반면 젊은 층은 계층 구조에 아주 민감하지는 않다.⁴⁴

이것이 상하관계가 한국의 직장 환경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일하는 개인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문자 그대로 정의한다.

3) 서양과의 비교

모든 계층적 관계에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⁴⁵ Hofstede 는 위계 질서와 연결된 문화적 특성을 권력 거리라고 부른다. 힘의 거리가 클수록, 서로 다른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는 차이가 커진다. 한국과 같이 큰 권력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보통, 권력이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용한다. 작은 권력의 문화권에서 권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⁴⁶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 발견되는 많은 젊은 CEO, 관리자 및 기타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이유이다. 서구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수준은 주로 나이별로 결정되지 않는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계급은 특정 순서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그룹의 모든 개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할당한다. 대조적으로,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계층 구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개인이 가능한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경쟁의 결과이다. 한국의 계층 구조와 같은 사회는 연령에 따라 계급이 굵직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⁴⁷

큰 권력을 가진 사회에서는 계층 구조의 피라미드처럼 가파르고 나이든 직원은 젊은 직원보다 더 공손한 대우를 받는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계층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인 거리로 인해 직원은 상사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상사의 명령이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반면에

⁴³ Jouhki, J., & Paaso, M. (2011), Ibid, pp.5.

⁴⁴ Vegdahl, S., & Hur, B. (2008), Ibid, pp.205.

⁴⁵ Park, M.S., & Kim, M.S. (1992), Ibid, pp.399-400.

⁴⁶ Hofstede, G. F. (2001), Ibid, pp.79-98.

⁴⁷ Triandis, H.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작은 권력을 가진 사회에서는 직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⁸ 권력이 큰 사회에서 계층적 관계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령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은 나이를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⁴⁹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서열에서 더 높으며, 더 권력을 가진다.⁵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상하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인들을 알아가는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Ⅲ.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상징적 표현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그들이 가진 상호 관계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또한 목적의식을 부여한다. 이전에 언급한대로 본인은 한국인의 특성을 동양화로 표현하기 위해 먼저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자연이 동양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세히 살펴야 한다.

한국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한국 산이다. 본인 역시 한국의 많은 산을 등반하고 탐구(探求)한 경험이 많다. 작가의 여행과 탐구 중에 작가는 한국의 산들과 서양에서 등반한 산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차이점 중 하나는 많은 한국산이 크기와 모양이 다른 암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산들의 특징은 바로 돌이 많다는 것이다.

⁴⁸ Hofstede, G. F. (2001), Ibid, pp.102-110.

Merkin, R. (2006), Power Distance and Facework Strategi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35(2), pp.139-160.

Robinson, J. H. (1996), Professional Communication in Korea: Playing Things by Eye,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39(3), pp.129-134.

⁴⁹ Park, M.S., & Kim, M.S. (1992), Ibid, pp.399.

Coyner, T.L., & Jang, S.H. (2007), *Mastering Business in Korea: A Practical Guide*, Seoul: Seoul Selection, pp.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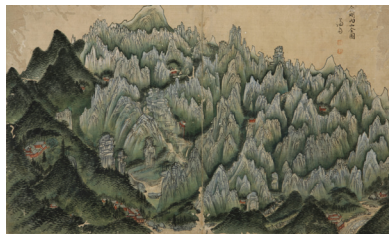
⁵⁰ Jouhki, J., & Paaso, M. (2011), Ibid, pp.5.

1. 돌의 상징적 표현

Jo Anne Valentine Simson은 한국 산을 형성하는 암석의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암석을 꽤 좋아한다. 그들은 바위를 장식으로 사용하고, 기념물로 비문을 새기며, 벽을 만들고 테라스를 세우는 데 사용한다. 바위는 산 속 어디든 있다. 나무처럼 바위는 한국인들에게 시골과 그들의 문화적 뿌리를 상기시킨다. 건물 앞의 장식용 테라스는 미적 감각을 호소하기 위해 주로 선택된 바위로 구성되며 그 중 일부는 녹지이다.⁵¹ 이런 바위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이 특별한 측면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물질로써 암석의 가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은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퍼져있는 암석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전적인 전통에서 바위는 영속성, 안정성, 그리고 유교의 규범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조화의 상징이다.⁵² Mai-Mai Sz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정신의 질(質)은 그들이 형성되는 방식만큼이나 기본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과 땅의 골격이며 또한 질(質)이 있는 바위와 함께 있다. 그것은 바위가 때때로 구름의 뿌리(雲之根)의 안에서 말하게 되는 이유다. 정신의 질이 없는 암석은 죽은 암석이다.”⁵³ 그래서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암석들은 그 안에서 흘러가는 정신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암석을 많은 것들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념이다.

1) 한국 미술에서 돌의 표현



【도판 7】 정신, 금강내산도, <해악전신첩>,
전본담채, 32.5x49.5cm, 간송미술관 소장 (1734년)

⁵¹ Simson, J.A.V. (2013), *Korea, Are You at Peace? : Tales of Two Women Travelers in a Troubled Land*, Abbott Press, pp.146.

⁵² Mullany, F. (2006), *Symbolism in Korean Ink Brush Painting*, Global Oriental, pp.37.

⁵³ Sze, M.M. (Contributor) (2015), *The Mustard Seed Garden Manual of Painting: A Facsimile of the 1887-1888 Shanghai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29.

바위의 중요성은 18 세기 한국화 중 겸재 정선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도판 7】 그는 돌산 중의 하나인 금강산을 소재로 작품들을 제작했다. 그는 특히 작고 큰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장관을 이루는 금강산을 집중적으로 그린 작가였다. 화강암으로 된 우리 산천을 표현할 새로운 필법과 휴산과 바위산을 음양대비로 표현하는 강렬한 기법을 창안하여 금강산 그림에서 이를 극명하게 구사하였다. 그의 그림을 공부하면서 본인도 그가 바위를 그릴 때 쓰는 필법을 연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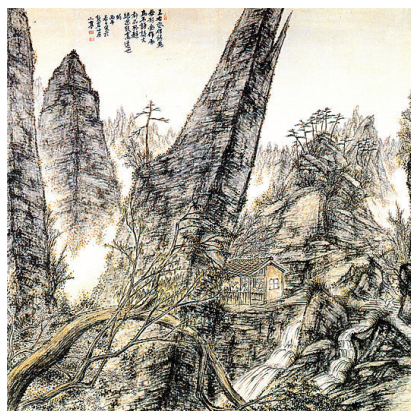


【도판 8】 박수근, 젖 먹이는 여인, 1958

동양화에 대한 바위의 중요성은 박수근의 20 세기 회화에서도 볼 수 있다. 【도판 8】 그는 유화로 ‘젖 먹이는 여인’을 그렸는데, 특유의 박수근의 화법 때문에 이 그림에서 암석 표면이 느껴진다. 그의 주제와 결합된 이 그림은 동양화처럼 느껴졌다. “젖먹이는 여인”이라는 그의 작품은 내 작품 중 “엄마” 【도판 3】라는 작품을 상기시켜준다. 본인이 한국문화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특수성을 바위로 상징한 것은 바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있는 바위의 힘과 능력이 바로 그 점이다. 엄마는 아이가 그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그렇지만 아기는 여전히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양문화권의 어머니보다 한국문화에서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나는 아이와 어머니가 가진 연관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다. 내 작품에서 바위는 한국 어머니를 표현하고, 그 내부는 그녀의 아이를 나타낸다. 그림 전체를 바위의 질감으로 감싸고 있는 박수근의 “젖 먹이는 여인”과 내 작품 “엄마”에서 엄마가 아이를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작품에 있는 바위의 의미와 모양이 같다고 생각한다.



【도판 9】 변관식, 금강산구룡폭포 |
종이에 수묵담채 | 121 x 91cm |
1960년대 전반



【도판 10】 변관식, 외금강 삼선암 추색 |
종이에 수묵담채 | 125.5 x 125.5cm |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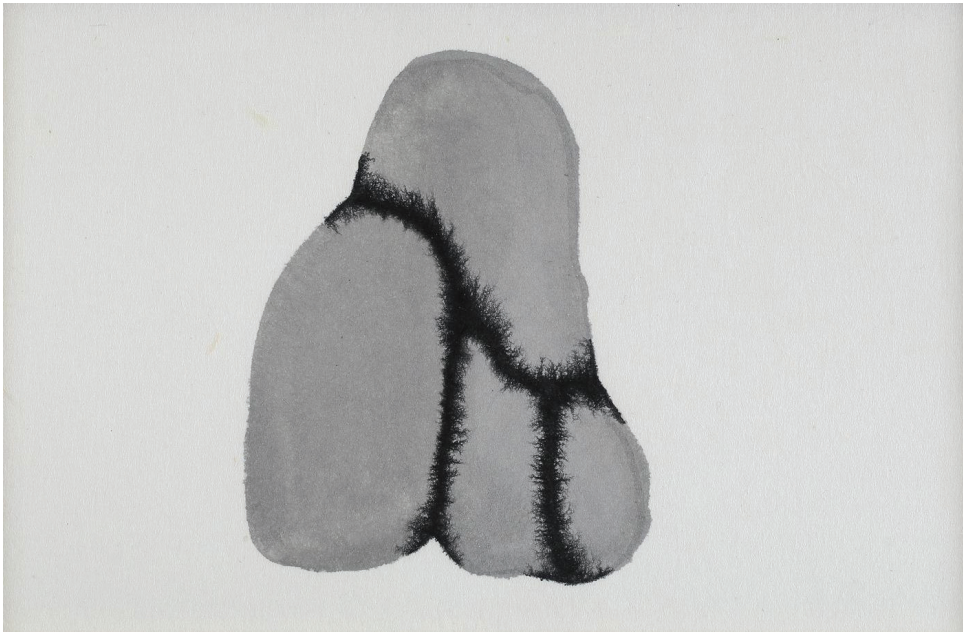
바위의 힘과 중요성을 전시 20세기 한국 작가의 또 다른 예는 소정 변관식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소정 변관식은 그의 작품 “금강산구룡폭포” 【도판 9】, “외금강 삼선암 추색” 【도판 10】에서 이 힘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바위는 유교의 규범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조화의 상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암석과 산을 좋아하는 편이다. 변관식은 그의 작품 안에 인물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그림 속 인물은 산 아래에 있는데 산을 계속 우러러 본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작품의 중앙에 사람 혹은 인간을 상징하는 집과 같은 조형물을 배치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화폭에 표현했다.



【도판 11】 김종영, 가족 작품 65-7 / 1965,
돌, 33x33x6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마지막으로, 20세기 조각가 김종영의 “가족 작품 65-7” 【도판 11】에서 암석의 중요성과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연관성을 보여주는 화면을 볼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은 “가족”이다. 내 작품 중 “가족 01” 【도판 12】과 매우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한다. 내 작품 “가족 01”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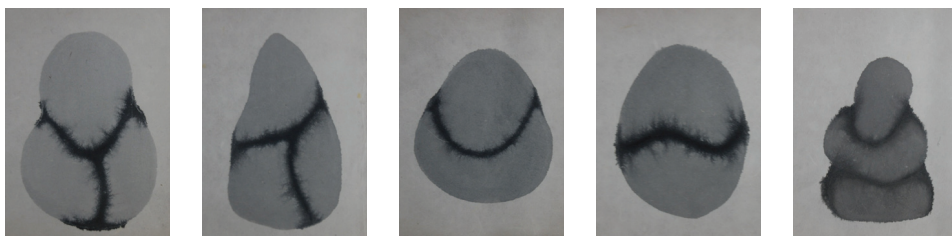
가족구성원들은 상호 연결된 부분들로 구성된 하나의 암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하나의 모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튀어 나온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보인다. 가족은 상호 연결된 개인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가족으로 묶임으로써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분리 할 수 없다.



【도판 12】 【작품 9】 가족 01,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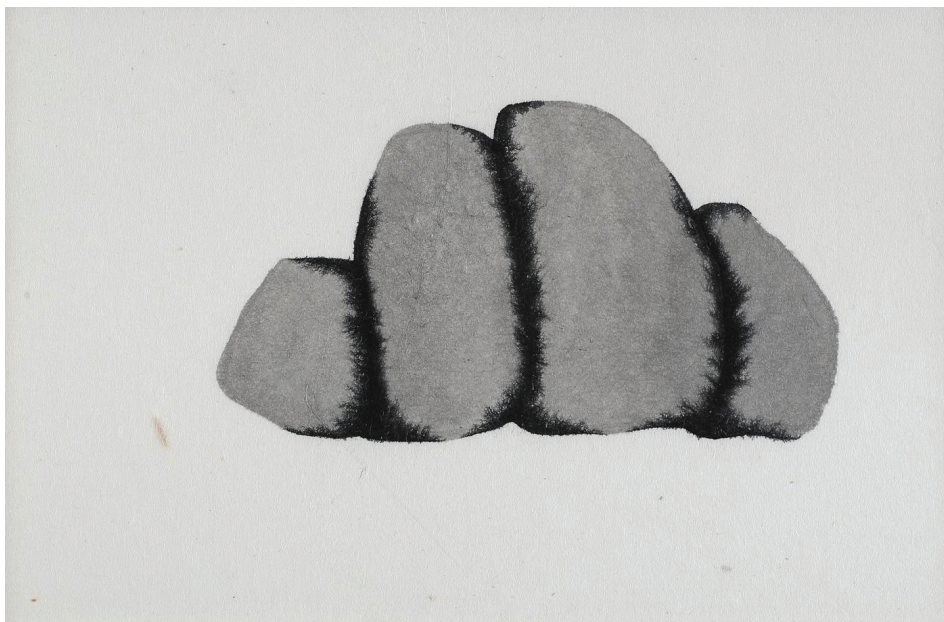
2) 집합적 표현

이전에 언급했듯이, 암석을 개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암석은 연속성과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그룹화 되어 하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일 때,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드러난다. 본질적으로, 암석들이 모여 있을 때, 암석들은 그들 자신보다 큰 어떤 것을 형성한다. 이 현상은 본인의 작품시리즈 ‘동호회’에서 볼 수 있다. 【도판 13】



【도판 13】 【작품 8】 동호회, 순지에 먹과 물감, 11.5x9cm (한 부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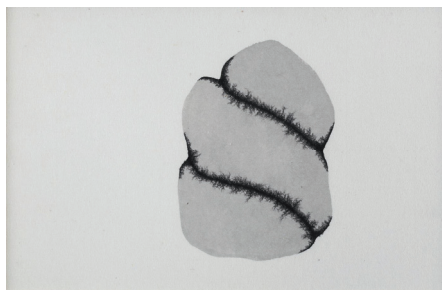
각각의 암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또한 그것은 모두 모여서 힘이 있고 더 강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에게 영향을 준다. 이것은 또한 “가족 10”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볼 때도 볼 수 있다. 【도판 14】 돌들이 서로 뭉쳐져서 하나의 큰 바위덩어리로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로 묶여 있음을 상징한다.



【도판 14】 【작품 11】 가족 10,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돌들이 함께 나란히 놓여 있을 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느낌이 들게 된다. 본인의 “경쟁” 【도판 6】이라는 작품에서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추동하는 관계를 나타내보았다. 또한 서로 연결하는 선의 흐름은 모두를 연결하고 공통 목표를 위해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돌들이 하나로 뭉쳐진 바위【도판 15】, 패턴으로 장식되어 둥글게 놓여있는 돌맹이들【도판 16】은 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표현했다. 암석들과 그 조각들을 연결하는 선은 이 모두를 함께 묶는 공동의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판 15】 【작품 13】 형제 03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도판 16】 【작품 3】 어린이들 02,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3) 돌의 모양

매우 쉽게 볼 수 있듯이 바위는 모두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다. 일부는 작고 일부는 크다. 일부는 원형이고 다른 일부는 타원형이다. 그래서, 바위의 모양을 표현할 때, Francis Mullan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위를 그릴 때 훌륭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 암석의 부피와 크기, 무게와 힘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생명력도 보여줘야 한다. 브러쉬 스트로크는 바위의 생명맥인 가장자리와 균열을 정의한다. 각 브러시 스트로크는 갑자기 멈추어서 방향을 바꿔서 움직여야 한다.⁵⁴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암석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Francis Mullany는 설악산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가 조사한 암석의 모습에 유사점이 있음을 알아냈다. 각각은 그것의 환경과 함께 가는 것을 나타내는 급하락 선들(swooping lines)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급격한 선은 암석이 주변 환경과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내 그림 속의 각각의 암석은 울퉁불퉁한 모퉁이가 아닌 둥근 모서리로 특징 지어지며, 타협의 중요성과 그룹 내의 긴장감을 피하고자하는 욕구를 다시 강조한다. 설악산의 봉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멀리서 보았을 때 날카로운 듯 보인다. 그러나 근접하게 바라보았을 때, 각각의 암석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각 암석의 형태로 표시되는 적합성이 그룹에 함께 놓이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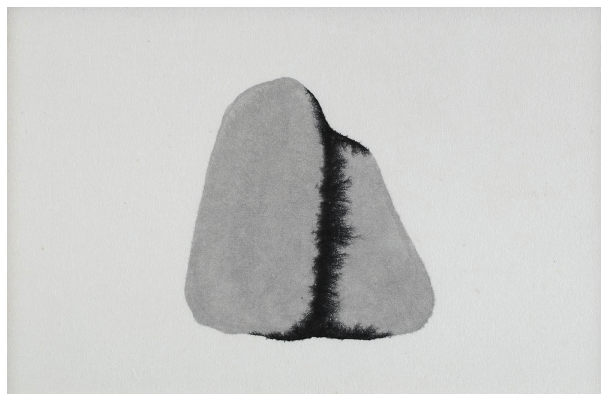
⁵⁴ Mullany, F. (2006), Ibid, pp.39.

어떻게 힘과 힘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4) 돌의 크기

한국인의 성격을 더 자세히 살펴볼 때 Mai-Mai Sze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요 산맥은 대략 남북 방향으로 달리는 태백 산맥으로, 동쪽 측면에 뼈대가 생겨 북쪽으로 이어진다. 소백의 범위는 태백 범위의 남쪽 끝에서 분기하고 한반도 중심의 맞은편에서 남서 방향으로 확장한다. 노령, 차령, 광주의 세 가지 작은 범위 또한 태백 지역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향한다. 이것들은 한국의 갈비뼈로 묘사되어 왔다.”⁵⁵ 우리가 “한국의 갈비뼈” 라는 산에 관한 이 성명서는 Mai-Mai Sze 의 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바위는 산의 뼈 구조를 형성합니다.”⁵⁶

사실, 일부 암석은 크고 일부 암석은 작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할 때, 그들의 힘은 크게 뭉쳐진다. 더 작은 것들은 더 큰 암석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큰 암석들이 접근 할 수 없는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한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암석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낸다. 한국의 여러 산을 이루는 바위에서 보듯이, 각각의 암석은 독특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나의 작업 “부부 01” 【도판 17】는 결혼 전에 남녀관계를 거쳐 부부로써 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를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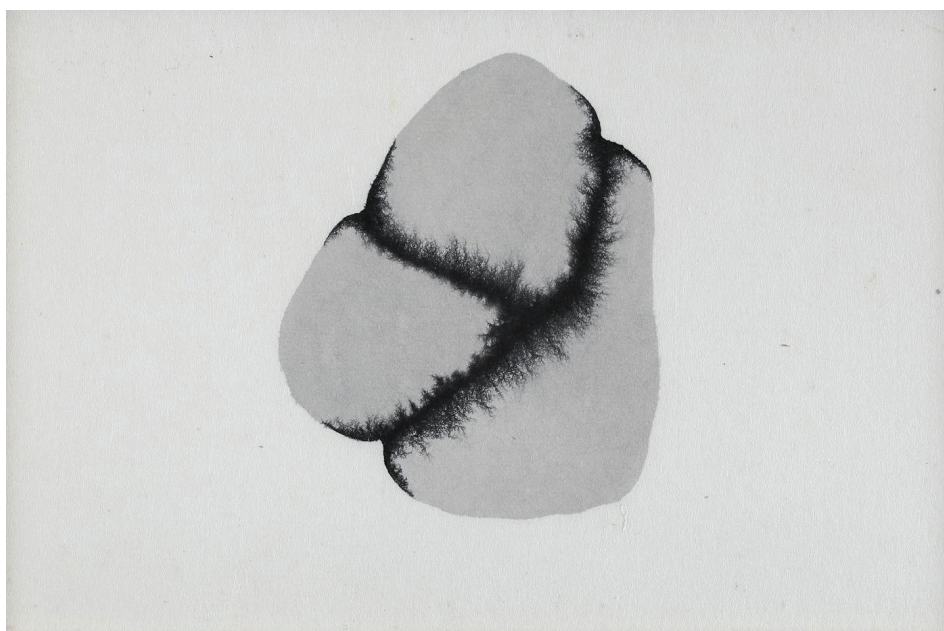
【도판 17】 【작품 12】 부부 01,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한국의 바위는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하다. 큰 암석은 작은 암석을 지지하고 작은 암석은 큰 암석이 차지할 수 없는 공간에

⁵⁵ Bowden, R. (2006), *South Korea : Countries of the World*, Evans Brothers, pp.12.

⁵⁶ Sze, M.M. (Contributor) (2015), *Ibid*, pp.203.

자리잡는다. 각각 자기가 위치하기 적당한 장소에서 서로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도판 18】



【도판 18】 【작품 14】 형제 04, 손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2. 선의 상징적 표현

동양화는 선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다. 동양화가는 작품 안에서 선의 아름다움을 적절하게 표현할 때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품에서 선이 가진 힘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따라서 화가 또는 서예가의 기술은 생명, 에너지 및 활력을 자신의 작품에 호흡하는 능력에 반영된다. 이것은 그림의 구성에서 감각적인 지각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하고 미묘한 획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붓의 타격, 모든 점은 자연의 한 형태를 제안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죽음의 타격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살아있는 선이나 타격은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장면을 형성하기 위해 조화 또는 리듬으로 결합한다.”⁵⁷ 예를 들어, 전형적인 중국어 회화에서 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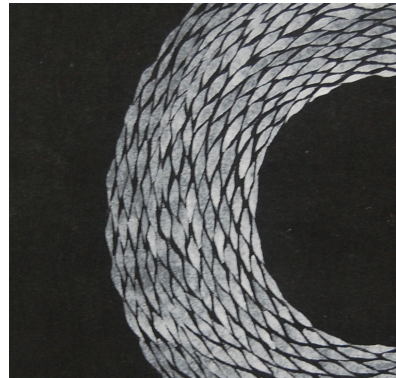
실질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형태, 연속성 및 개요에 대한 지속적인 강약을 통해 함께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붓글씨 작품은 각각의 움직임, 운동량 및 변형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획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운봉의 운용이 조화롭게 완성되면 화폭이 가지고 있는 기와 리드미컬한 활력이 청중에게 느껴질 수 있다.⁵⁸

1) 이어짐의 표현

관계라는 작품을 처음 보면, 멀리서 봤을 때 줄 하나만이 보인다. 【도판 19】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여러 줄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판 20】 본인이 패턴을 사용한 이유는 한국인이 공동된 정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이다. 한국 국민의 영혼을 움직이는 공통의 정신이다. 이 영혼은 “정”이라고 불리며 누군가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국가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도판 19】 【작품 1】 관계 01 [Large],
순지에 먹과 물감, 110x80cm, 2015



【도판 20】 【작품 2】
관계 02 [Small], (부분)

작가의 작품에 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려면 작품의 선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하나의 획은 작고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⁵⁷ Chiang, Y. (1936), *The Chinese Eye*, London. Methuen & Co. Ltd. Cooper, R, pp.84.

⁵⁸ Hernes, T., & Maitlis, S. (2010), *Process, Sensemaking, and Organizing Volume 1 of Perspectives on process organization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pp.122.

선과 함께 배치되었을 때 체인을 만드는 것처럼 연동된다. 즉 체인의 힘이 느껴질 때 연동이 되는 것이다. 정을 중심으로 갖는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연결과 정신을 설명하면서, 조영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을 움직이고, 한국인을 좌우하는 것은 정이다. 그럼에도 정의 개념은 모호하다.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명확하지만 정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정의 형성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이 말하는 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는 부부 사이의 정, 남녀 사이의 정, 형제 사이의 정, 그리고 친구 사이의 정도 있다.

부부 사이의 정과 남녀 사이의 정은 애정의 정, 형제 사이의 정은 우애의 정, 친구 사이의 정은 우정의 정, 사물에 대한 물정의 정이다. 그 밖에도 온정, 동정, 인정, 인심, 연민, 미련의 정도 포함된다. 이처럼 한국의 정은 사람이 어떠한 대상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을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리고 정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은 시간의 흐름을 기본으로 “든다”, “들다”라는 동사와 어울리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처음 만나 바로 정이 들지는 않는다. 정이 들려면 제법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하는 미련과 마찬가지로 가슴 속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한 올 한 올 쌓여 정이 된다. 결국 정은 시간의 산물이다. 물리적 시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니 단축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식을 벗어 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주 대하면 된다. 그래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같이 목욕을 하고, 같이 잠을 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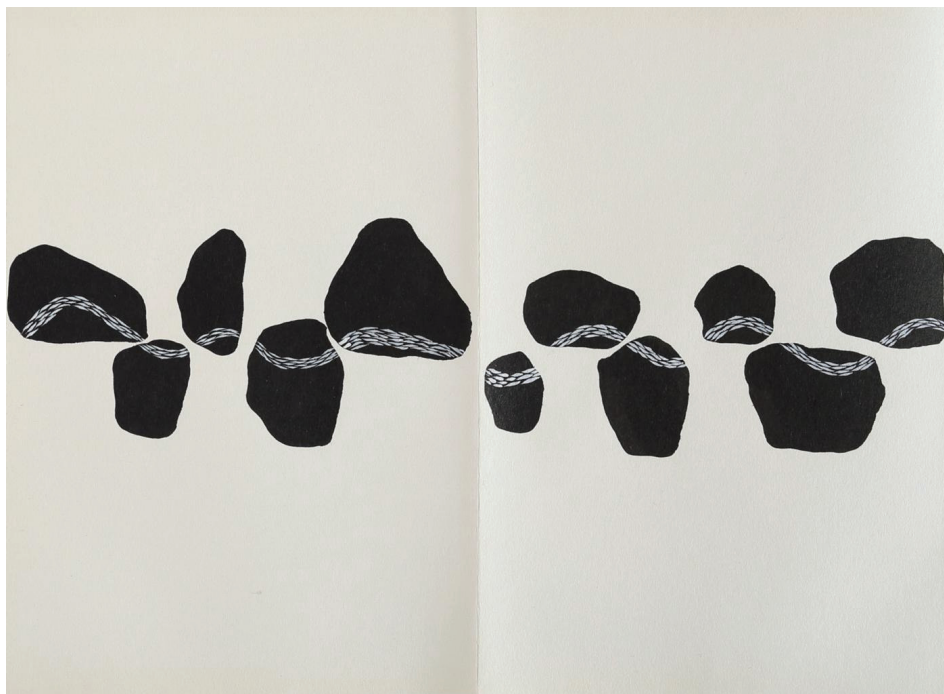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정을 기반으로 한 한국인 사이의 연결 고리는 사람들에 따라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연결이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 있는 그림에 따라 선의 모양, 크기 및 구성이 달라진다.

2) 움직임의 표현

마지막으로 동양화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작업 내에서 선들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이다. 이 이동은 각 선 획이 같은 방향을 향한 결과이다.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전체가 움직이는 것과 흡사하다. 이것은 한국인들 사이의 연결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임을 상징한다. 공공 정신을 향한 일치는 한국인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사고는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상황이

나아갑니다”이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의 작품 “줄다리기” 【도판 21】에 각 돌을 연결하는 선을 그린 이유이다. 작은 선을 묶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국 국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도판 21】 【작품 15】 줄다리기, 순지에 먹과 물감, 24.5x391cm, 2017 (Part 3)

회화에서 선의 위치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움직임의 효과는 많은 다른 동양화가들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도자(吳道子)라는 화가의 작품이다. 【도판 22】 당대(當代)에는 궁정화가 외에 민간화가로서 유명한 오도자(吳道子)가 있다. 염입본(閼立本)이 선 중심의 회화에서 입체감을 살리는데 공력을 쏟았다면, 오도자는 선의 기법을 최고로 발전시켜 백묘화(白描畵)를 제창했다. 백묘화란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선만 가지고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이전의 그림에서는 비록 선이 화면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선으로 그린 면에다 색감을 채워 넣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도자는 선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선의 속도와 경중 등에 다양한 변화와 리듬감을 주어 선 자체가 가진 생명력을 최대화했다.



【도판 22】 오도자 「팔십칠신선도(八十七神仙圖)」 부분

3) 반복적 표현

재료의 특성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진행 하면서 한국인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앞서 말한대로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자신이 돋보이거나 특별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남들 앞에 두드러져 보이기보다는 단체 안에 섞여 있기를 좋아한다. 이는 과거에 유교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원칙이다. 유교사상이 매우 오래된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남아있다. 유교사상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가족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자신의 욕구와 단체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에는 단체의 욕구가 우선시 된다.⁵⁹

그러므로, 단체 내에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그 단체가 특정한 옷을 구매하려고 할 때, 개인은 단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이는 단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한 사람을 보기보다,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으로 보여지기 위함이다.

⁵⁹ Clark, D.N. (2000), *Culture and Customs of Korea*, Greenwood Publishing Group, p.32.

결과적으로 패션의 유행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실제 물건들이나 간단한 습관과 같이 다른 영역에서도 유행을 이끌어낸다. 이는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응원하는 방법, 춤 동작, 한 목소리로 부르는 응원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한국인의 이 같은 관습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논문에서 선보인 작품에 반복적인 선을 사용하였다. 【도판 20】 각각의 필법은 같은 움직임을 사용했고 같은 방향으로 칠해졌다. 수 천 개의 개별적 붓터치가 사용되었지만, 감상자들의 눈에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도록 표현되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관계의 힘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전 섹션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이 관계는 그들을 전체의 일부로 포섭하고 단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했다.

IV. 조형적 특성 및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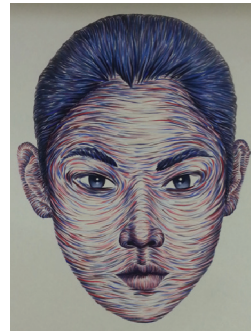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움직임의 성향과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연과 관련된 관계이다. 본인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그들과 자연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양예술가로서, 본인은 매우 세부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했다. 그리고 본인은 세부적인 것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에 익숙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동양화의 미를 배운 후, 단순함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인은 암석과 선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표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용된 모양, 형태, 위치 및 재료까지 모두 본인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했다.

1. 수묵

선과 필법의 중요성과 함께, 서양화와 동양화 사이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그림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새로운 형태의 회화 기법을 배울 때, 사용할 재료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작가는 그 재료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배워야 한다. 【도판 23】과 【도판 24】에서 본인은 한국인들의 초상을 전통재료인 채색수묵물감을 사용하여 그려보았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 전통 채색화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았다.



【도판 23】
Cool Intellectual, 장지에 채색,
110x80cm, 2013



【도판 24】
Traditional Beauty, 장지에 채색,
110x80cm, 2013

꾸준한 연구를 하면서 전통 색채가 갖고 있는 각각의 깊은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한국화는 자연에서 따온 5 가지 기본색(파랑, 빨강, 흰색, 검정, 노랑)에 바탕을 둔다. 파랑은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봄을 상징한다. 빨강은 애정, 불, 피와 같은 것을 상징한다. 흰색은 금속, 가을, 서쪽을 상징한다. 검정은 물과 북쪽을 상징한다. 노랑은 우주의 중심에 상응하는 지구를 상징한다.

먹은 동양화에서 사용된 가장 기본적인 미디엄이다. 솥에서 만든 먹물은 풍부한 톤과 검정색의 변화무쌍함을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먹물은 완전한 검정은 아니지만 자연에서 발견한 검정에 가까운 색이다.

또 다른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묵화는 동양화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이 표현 방법은 동양적 혼을 반영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먹은 본래 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먹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색을 통합하는 진짜 색 혹은 텅 빈 색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모든 색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⁰ 이러한 지식과 함께 본인은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는 대신 먹을 사용한 작품을 하기로 결정했다. 위의 【도판 3】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듯이, 본인은 먹에 의해 전달되는 정신과 깊은 느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2. 평면성

다음으로, 본인은 3 차원 바위 대신 평면의 바위를 그리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본인의 집단주의에 관련된 작품들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본인이 자신의 작품에 출연하기를 원했던 평평한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⁶⁰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01), *The Scent and Shape of Ink: Contemporary Ink Painting of China, Japan and Korea*, Life & Dream Publishing Co.Ltd, pp.23-24.

속성이 있다. 첫 번째 속성은 평평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 하나에서 발견된다. 사전에 따르면, 평평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을 의미한다.⁶¹ 다시 말해서, 평평한 무언가는 편차나 변화 없이 절대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바위를 평평하게 그려서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다. 평평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뒤에 숨겨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한국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이 서로에게 갖는 관계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정의한다.

두번째 속성은 평평이라는 단어의 다른 정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른 정의는 “부드럽고 평평하며 어떤 표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즉, 마찰이 없고 주변에 있는 것과 쉽게 섞인다. 이것은 한국인의 관계에서도 해당된다. 한국인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찰 대신 조화를 이루려는 욕망이 있으며, 이 때문에 차이점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점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본인은 바위를 평평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리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개인의 바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체적으로 함께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3. 스میم과 얹힘

본인은 한국인의 관계의 특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연구하면서 상호 연결성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파고 들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분리될 수 없다. 이 상호 연결성은 본인이 가족이라는 시리즈와 동호회라는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다.

평면성에 대한 이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인은 먹 전체가 퍼져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본인은 흰색 물감에 소량의 먹을 추가한 다음 붓으로 물을 채웠다. 그 후, 본인은 더 작은 마른 붓을 사용하여 먹을 붓에 묻혀서 얹었다. 그런 다음 젖은 상태의 흰색 물감을 아주 조금 건드리면 한지 위에서 안료가 퍼진다. 이 스میم은 작품 내에서 바위의 곡선과 연결점을 따라갔다. 그 결과로 시작이나 끝이 없는 유기적인 연결 고리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관계의 상호 연결성이 자신이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되며 분리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또한 연결 자체가 초점의 포인트와 아름다움의 포인트가 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결이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연결이 작품 전체에 퍼지면 퍼질수록 작품이 더

⁶¹ flat 2017, Merriam-Webster.com,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flat>.

아름답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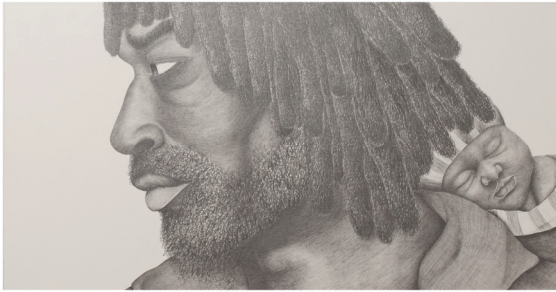
또한 연결이 끊어지면 개개인 자신도 부서진다. 연결 그 자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사회에서 계속 움직이게 해 주는 것이다.

4.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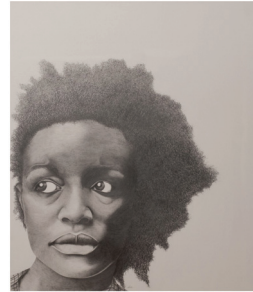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양화의 기법과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도판 25】을 보면 그 과정의 전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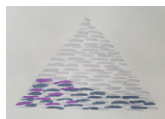
동양화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단순히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동양화 스타일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양화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작업 초창기 시절에 본인은 미국에서 주로 그렸던 초상화【도판 26】【도판 27】를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그리면서 획 하나하나를 모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한 그 것이 아니었다. 【도판 23】 【도판 24】몇몇 초상화를 완성해놓고 보니, 아직도 서양화풍의 그늘에 있었다. 동양화풍의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나는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고 동양화 스타일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동양화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에 대해 더 깊이 파고 들기로 결심했다.



【도판 26】
"Responsibility", Pencil on paper,
127 X 99cm, 2008



【도판 27】
"Passerby", Pencil on paper,
134.62 X 144.78cm, 2008



【도판 28】 <스케치 01 - 03>, 2014

겸재 정선의 작품들을 보고 난 후에, 내가 집중하기로 결심한 것은 선이었다. 이를 위해 설악산을 방문하여 다양한 암석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스케치를 제작하면서 내 생각과 느낌도 변하기 시작했다. 서양 문화에서 자연은 인간과 별개로 간주된다. 서양문화에서 자연의 일반적인 견해는 자연의 풍경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에서는 자연과의 관계가 훨씬 깊다. 동양 사람들은 자연과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자연과 교감하는 긴 시간을 통해 그들은 자신과 삶에 관한 것들을 깨닫기도 한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산을 가까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도 한국인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2014 년 이후부터는 바위를 한국인들이 국가의 권익을 위해 함께 단합하는 상징으로써 인식했다. 이 시기 산과 바위의 스케치 느낌은 좋았지만, 나는 아직도 동양화에 의미를 두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그저 유명한 예술가의 스타일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한 내 스케치는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부가적인 선들이 많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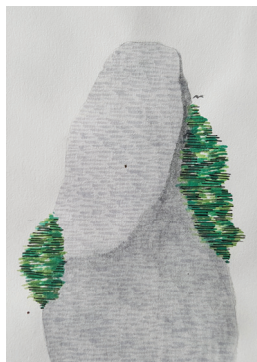
【도판 29】 <스케치 04>, 2014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미지를 단순화하는 것이었다. 복잡한 세부 사항을 그리는 대신 주제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점의 바위 작품을 칠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림자나 바위의 각 부분에 집중하는 대신, 전체를 보면서 실험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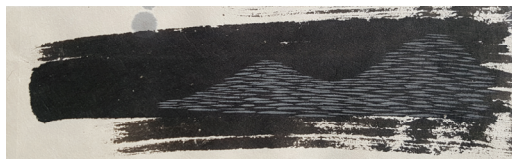
【도판 30】 <스케치 05>, 2014

점차 나는 전체적으로 산들을 보기 시작했다. 내가 연습했던 기법을 사용하여 산 전체를 그리고자 했다. 그 결과는 【도판 30】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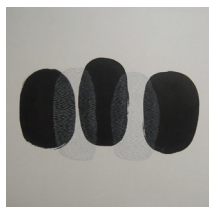
【도판 31】 <스케치 06>, 2015

이 단계를 계속 진행하면서 내가 제작 한 스케치에 약간의 색상을 추가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 【도판 31】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화면의 느낌이 아니었기에 색을 더하는 것을 멈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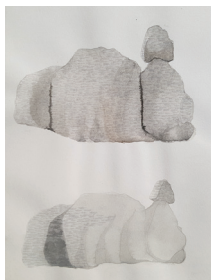
【도판 32】 <스케치 07>, 2015

단색과 흑백에 중점을 두어 더 현대적인 동양화 스타일로 가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흑백을 추구하며 단색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전 단계에서 작업한 암석의 형상과 진목을 결합한 흑백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선들을 서로 연결하는 표현법을 실험해보기로 했다.



【도판 33】 【작품 5】 새로운 우정,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이 작품에서 나는 한국인들이 처음 만날 때 발견된 연결 고리를 표현했다.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지를 나타내고 싶었다. 한국인들은 보통 처음 만나면 공통점을 찾기 위해 사적인 부분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한다. 그들은 나이, 학교 배경, 경력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 서로 묻는다. 공통점이 발견되면 관계를 정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림에서 나는 각자의 서로 다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개개의 암석 사이로 작고 가는 선을 사용했다. 두 바위가 서로 겹치는 부분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며, 이들이 어떤 유형의 연결을 가졌는지를 표현해보았다.



【도판 34】 <스케치 08>, 2015

암석의 형성과 형태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었다. 나는 각각의 암석이 다른 암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바위 구조물을 더 가까이에서 볼수록, 큰 바위는 또 다른 바위에게 기대어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고, 훨씬 더 작은 돌들로 견고하게 받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체 형성의 힘을 이룬 바위 사이의 연결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구조물을 계속해서 그렸다.



【도판 35】 <스케치 09>,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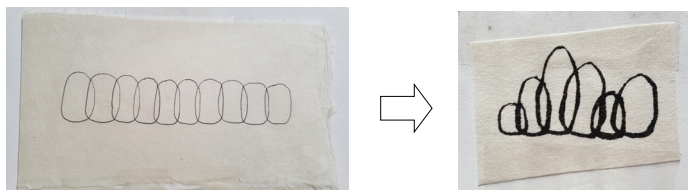
내가 스케치를 하고 칠을 하면서 바위 간의 형상과 관계가 나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바위들이 서로 접촉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단순히 바위를 그렸던 것처럼 인간관계를 그리고자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도판 36】 <스케치 10>, 2015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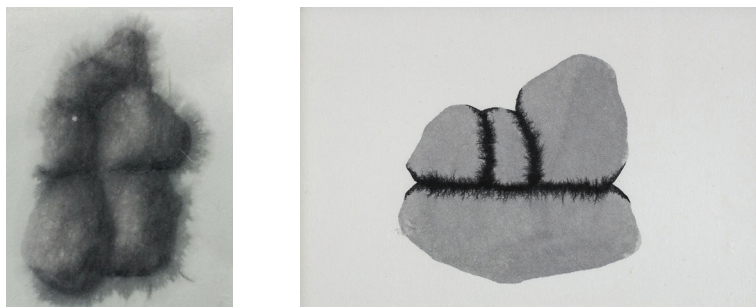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한국 사람들을 관찰해 보게 되었다. 나는 한국인들에게 끊임없는 연고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된 선으로 한국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연결을 정이라고

부른다. 라인 초상화는 한국인의 얼굴을 연결했지만 암석을 사용하여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도판 37】 <스케치 11 - 12>, 2015 - 2016

그래서 나는 암석을 보다 간단한 형태로 연결하여 연구와 스케치를 계속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이후로는 이 선 그림과 내가 해왔던 바위의 그림들을 결합하는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도판 38】 <스케치 13>, 2015 & <가족 07>,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그래서 나는 바위를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붓질하기 시작했고, 먹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이미지는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형상 전반에 스며드는 먹의 흐름을 제어하려고 계속 노력했다. 얼마간의 연습 후에 나는 번짐을 조절하고 그 범위를 연결 영역에만 한정해 두었다. 이것이 2017 년 시리즈의 작업이 진행된 과정이다.

V. 맺음말

한국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기 이전, 즉 동양미술에 대한 지식을 본격적으로 쌓기 전까지 본인은 서양미술사는 인물의 초상화의 비중이 큰 편이고, 그에 비해 동양미술사는 풍경화의 비중이 크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본인이 보기에 서양에서 인물화가 발달한 이유 중의 하나로 ‘개인주의’ 사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 전반의 저변에 깔린 개인주의는 서양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그렇기에 미술에서는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인물화가 발달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왜 이렇게 풍경화가 발달하였는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매우 궁금했었다. 이후 한국에서 정주하기 시작한 후에 한국 문화의 경우,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신이 속해있는 그룹과의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동양미술을 접하면서 작품에 표현된 인간과 자연과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본인은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이용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화가들이 한국인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 간의 다양한 관계양상을 표현해야 했다. 이것이 본인의 논문 목표이다.

이를 위해 본인은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징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미국인으로서는 나에게 서양문화에서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나의 인식에 점차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게 되면서 한국 문화의 초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 문화 속에 ‘나’ 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인식 되는 것을 말한다. 서양 문화에서 개인은 그 자신이 그가 속한 그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그룹의 정체성이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국 문화에서 그토록 중요하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나는 이런 관계 덕분에 한국 전쟁이 끝난 후 국민들이 뜻을 모아 조속히 산업화에 힘쓰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은 그룹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집중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전진해가는 경향이 있음에 연구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

내가 아닌 ‘우리’와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면서 느낀 세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정리해보자

면 상호의존성, 집단주의, 상하관계를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상호의존성은 가족 단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가족 단위는 한국 문화의 기본이며 유교에 따르면 가족은 개인보다 중요성이 높다. 개인은 가족 단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치 질병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는 것처럼 가족구성원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아 키우고 그들이 결혼하여 새가정을 꾸리는 과정에 걸친 극단적인 보살핌과 도움에도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집단주의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함께 모여 활동하는 성향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같은 학교, 이웃, 회사, 취미 및 기타 유사한 사항을 토대로 한 모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 볼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보다 더 각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나” 보다 “우리” 에 집중하는 성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교에서 얻은 영향으로 인해 함께 움직이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조화를 유지하고자하는 다수의 한국인의 욕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공동체의 조화와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개인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특징은 상하관계이다. 유교의 ‘예법’ 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나이에 따라 한국어도 변화한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 어떤 관계가 시작될 때, 각 개인은 상대방을 적절히 대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나이를 물어 보곤 한다.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를 존경심으로 대접한다. 이것은 다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에서 시작된 이러한 연장자에 대한 공경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신입 사원과 선배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본인이 이 연구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인은 위에 말한 세 가지 특징들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동양화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우러러보며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자연물에 이와 같은 깨달음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과 자연과의 관계가 동양화의 핵심 요소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에게 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당시 본인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많은 산을 여행했기 때문에 서양 산과 한국 산의 큰 차이점 중 하나로써 한국 산은 주로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본인의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매체로 삼게 되었다.

바위표현을 연구하면서 바위와 돌산 등을 작품의 대상으로 사용했던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분석해보았다. 정선, 박수근, 변관식, 김종영의 작품들에서 각 예술가의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바위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본인은 바위를 소재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표현을 위해 바위의 세 가지 특성을 적용하기로 했다. 첫째는 돌산의 집합적인 특징을 쓰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개별 부분이 함께 모여 전체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는 돌의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각각의 형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돌의 크기를 사용하여 각 암석의 크기가 어떻게 차이를 갖는지 표현하고, 다른 부분에 미치는 상호 영향력을 표현해보았다. 이것은 또한 내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관계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화폭에 담기 위한 묘법을 연구해보면서 동양화에서 필획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 작품에서 선을 세 가지 필법으로 운용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움직임, 두 번째는 이어짐, 세 번째는 반복이다. 먼저 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볼 때 각 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각 전체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지는 필법을 사용했다. 이는 두 번째 필법인 이어짐으로 연결되는데 전체적으로 결집된 선의 움직임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을 표현하기 위해 선을 사용했다.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선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다. 튀어 나오는 대신, 각 개인은 그룹의 조화를 위해 서로 하나가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내 작품에 담기 위해서 나는 오랜 시간 발전의 단계를 밟아가며 스케치와 묘법 연마를 했다. 이 시간을 거치며 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한국인이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동양화의 다양한 특성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에 특히 그러하다. 평면성과 스밈, 얹힘에 대한 실험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면서 배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면서 논문 연구의 일부가 된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한국에 와서 동양화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본인의 목표는 미국에서 인물화를 그리던 방식으로 한국인의 초상화를 동양화 재료들로 그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한국인에 대해 깊이 알고 동양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연결고리의 특징을 보기 시작했고, 한국인에게 있어 자연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로 이주하여 살면서 연을 맺은 지인들의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동양의 전통 사상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배우게 되면서 내가 느낀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이

것이 나의 논문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모국의 문화와 다른 문화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

참고문헌

- 권수영 (1989),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살림, 20-44 쪽.
- 나은영 (2013), 한국인은 누구인가: 38 가지 코드로 읽는 우리의 정체성, 21 세기북스, 154-167 쪽.
- 소원근 (2013), 공익산출이론과 동북아시아 집단주의 문화,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동북아문화연구 제 37 집, 563-584 쪽.
- 이수원(1984), 한국인의 인간관계 구조와 정,(교육논총),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95-125 쪽; 이수원(1987),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정 공간, 1987 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심리학회, 131-142 쪽.
- 최상진-이요행 (1995), 한국인 핏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1995 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3-338 쪽.
- Aron, A., & Aron, E.N. (1986), *Love and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pp.19.
- Chiang, Y. (1936), *The Chinese Eye*, London. Methuen & Co. Ltd. Cooper, R, pp.84.
- Chung, C. K., & Cho, S. (2012), Significance of “Jeong” in Korean culture and psychotherapy, *Harbor-UCLA Medical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prcp.org/publications/sig.pdf>.
- Coyner, T.L., & Jang, S.H. (2007), *Mastering Business in Korea: A Practical Guide*, Seoul: Seoul Selection, pp.30-31.
- Clark, D.N. (2000), *Culture and Customs of Korea*, Greenwood Publishing Group, p.32.
- flat 2017, *Merriam-Webster.com*,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flat>.
- Mullany, F. (2006), *Symbolism in Korean Ink Brush Painting*, Global Oriental, pp.37-39.
- Park, H. (2009), *Korean Culture for Curious New Comers*, Pagijong Press, pp.64-68.
- Hofstede, G. F.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u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Nations*, Thousand Oaks: Sage, pp.79-110.
- interdependence 2017, *Merriam-Webster.com*, Retrieved August 20, 2017,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interdependence>.
- Simson, J.A.V. (2013), *Korea, Are You at Peace? : Tales of Two Women Travelers in a Troubled Land*, Abbott Press, pp.146.
- Jouhki, J., & Paaso, M. (2011), How Expatriates from Finland Experience Hierarchy in a Korean Working Environ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cultural Studies*, www.academia.edu/169992/Finns_Making_Sense_of_Korean_Hierarchy_How_Expatriates_from_Finland_Experience_Hierarchy_in_a_Korean_Working_Environment.

- Kim, M.H. (1993), Transformation of family Ideology in upper-middle-class families in urban South Korea, *Ethnology*, 32(1), pp.69-86.
- Kim, S. (2003), Korean cultural codes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6(1), pp.93-114.
- Sze, M.M. (Contributor) (2015), *The Mustard Seed Garden Manual of Painting: A Facsimile of the 1887-1888 Shanghai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29-203.
- Merkin, R. (2006), Power Distance and Facework Strategi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35(2), pp.139-160.
- Miike, Y. (2007), An Asiatic reflection on Eurocentric bias in communication theory, *Communication Monographs*, 74(2), pp.272-278.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01), *The Scent and Shape of Ink: Contemporary Ink Painting of China, Japan and Korea*, Life & Dream Publishing Co.Ltd, pp.23-24.
- Park, M.S., & Kim, M.S. (1992), Communication Practices in Korea, *Communication Quarterly*, 40(4), pp.399-400.
- Redford, E.S. (1958), *Ideal and prac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Bowden, R. (2006), *South Korea : Countries of the World*, Evans Brothers, pp.12.
- Robinson, J. H. (1996), Professional Communication in Korea: Playing Things by Eye,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39(3), pp.129-134.
- Song, Y.J., Hale, C.L., & Rao, N. (2005), The South Korean Chief Negotiator: Balancing Traditional Values and Contemporary Business Pract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5(3), pp.313-328.
- Vegdahl, S., & Hur, B. (2008), *Culture Shock! Korea: A Survival Guide to Customs and Etiquette*, Marshall Cavendish International Asia Pte. Ltd, pp.205.
- Shim, T.Y., Kim, M.S., & Martin J.N. (2008), Changing Korea: Understanding Culture and Communication (Vol.10 / Critic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Peter Lang, pp. 27-68.
- Hernes,T., & Maitlis, S. (2010), *Process, Sensemaking, and Organizing Volume 1 of Perspectives on process organization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pp.122.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 Yum, J.O. (1988),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East Asia, *Communication Monographs*, 55(4), 374-388.

도판목록

- 【도판 1】 <Figure 3.1>, Korean Confucianism Diagram
- 【도판 2】 <가족 07>,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도판 3】 <엄마>,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 【도판 4】 <동호회>, 순지에 먹과 물감, 11.5x9cm (한 부분), 2015
- 【도판 5】 <차이에 의한 관계 01>, 순지에 먹과 물감, 44x34cm, 2015
- 【도판 6】 <경쟁>, 순지에 먹과 물감, 80x110cm, 2015
- 【도판 7】 <해악전신첩>, 정선, 금강내산도, 견본담채, 32.5x49.5cm, 1734
- 【도판 8】 <젓 먹이는 여인>, 박수근, 1958
- 【도판 9】 변관식, <금강산구룡폭포>, 종이에 수묵담채, 121x91cm, 1960
- 【도판 10】 변관식, <외금강 삼선암 추색>, 종이에 수묵담채, 125.5x125.5cm, 1966
- 【도판 11】 김종영, <가족 작품 65-7>, 돌, 1965
- 【도판 13】 <동호회>, 순지에 먹과 물감, 11.5x9cm, (한 부분) 2015
- 【도판 14】 <가족 10>,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도판 15】 <형제 03>,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도판 16】 <어린이들 02>,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 【도판 17】 <부부 01>,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도판 18】 <형제 04>,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도판 19】 <관계 01 [Large]>, 순지에 먹과 물감, 110x80cm, 2015
- 【도판 20】 <관계 02 [Small]>, (부분)
- 【도판 21】 <줄다리기>, 순지에 먹과 물감, 24.5x391cm, 2017 (Part 3)
- 【도판 22】 오도자 「팔십칠신선도(八十七神仙圖)」 부분
- 【도판 23】 <Cool Intellectual>, 장지에 채색, 110x80cm, 2013
- 【도판 24】 <Traditional Beauty>, 장지에 채색, 110x80cm, 2013
- 【도판 25】 제작 과정의 모든 스케치들, 2013 - 2017

- 【도판 26】〈Responsibility〉, Pencil on paper, 127 X 99cm, 2008
- 【도판 27】〈Passerby〉, Pencil on paper, 134.62 X 144.78cm, 2008
- 【도판 28】〈스케치 01 - 03〉, 2014
- 【도판 29】〈스케치 04〉, 2014
- 【도판 30】〈스케치 05〉, 2014
- 【도판 31】〈스케치 06〉, 2015
- 【도판 32】〈스케치 07〉, 2015
- 【도판 33】〈새로운 우정〉,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 【도판 34】〈스케치 08〉, 2015
- 【도판 35】〈스케치 09〉, 2015
- 【도판 36】〈스케치 10〉, 2015-2016
- 【도판 37】〈스케치 11 - 12〉, 2015 - 2016
- 【도판 38】〈스케치 13〉 2015 & 가족 07,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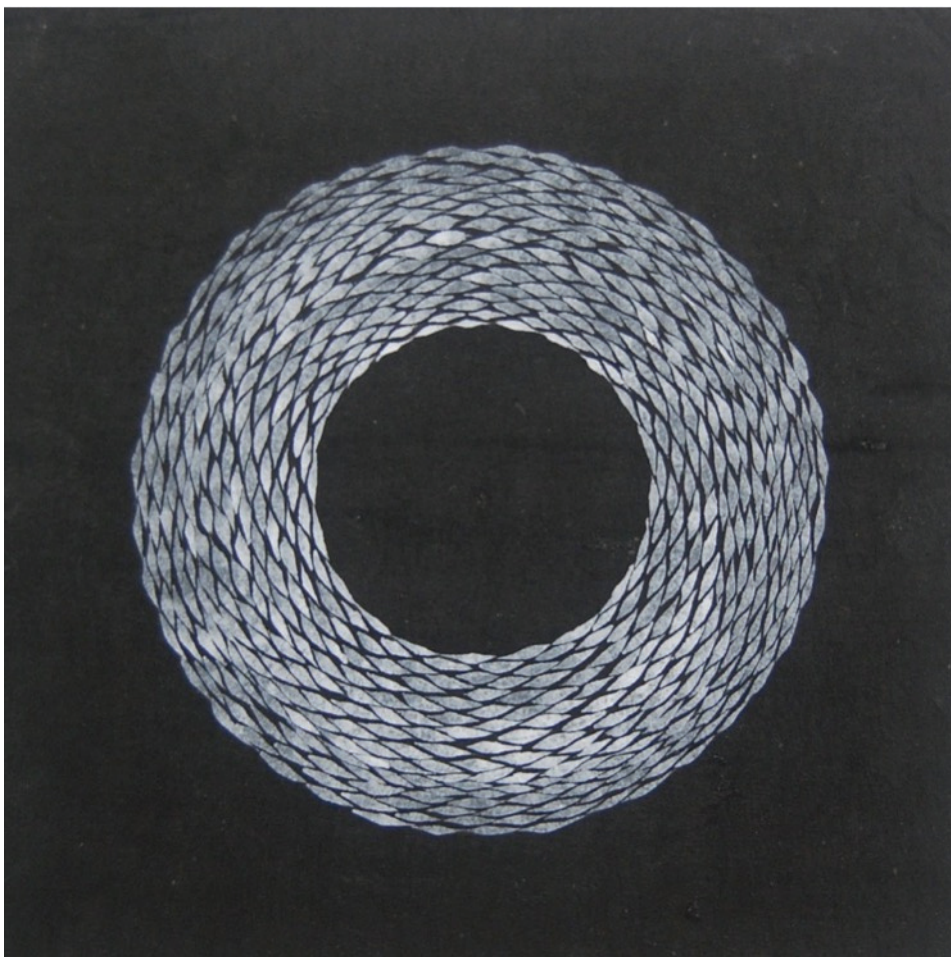
작품도판

작품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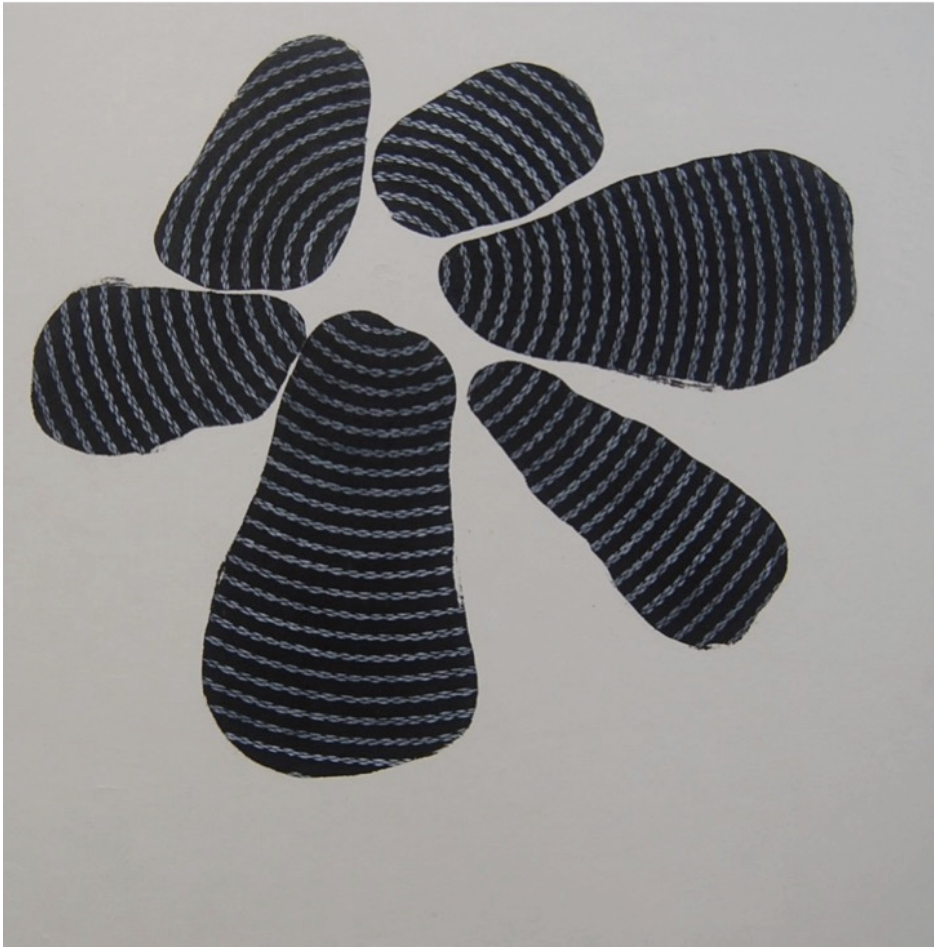
- 【작품 1】 관계 01 [Large], 순지에 먹과 물감, 110x80cm, 2015
- 【작품 2】 관계 02 [Small], 순지에 먹과 물감, 18x18cm, 2015
- 【작품 3】 어린이들 02,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 【작품 4】 차이에 의한 관계 01, 순지에 먹과 물감, 44x34cm, 2015
- 【작품 5】 새로운 우정,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 【작품 6】 엄마,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 【작품 7】 경쟁, 순지에 먹과 물감, 80x110cm, 2015
- 【작품 8】 동호회, 순지에 먹과 물감, 11.5x9cm (50 개), 2015
- 【작품 9】 가족 01,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작품 10】 가족 07,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작품 11】 가족 10,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작품 12】 부부 01,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작품 13】 형제 03,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작품 14】 형제 04,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 【작품 15】 줄다리기, 순지에 먹과 물감, 24.5x391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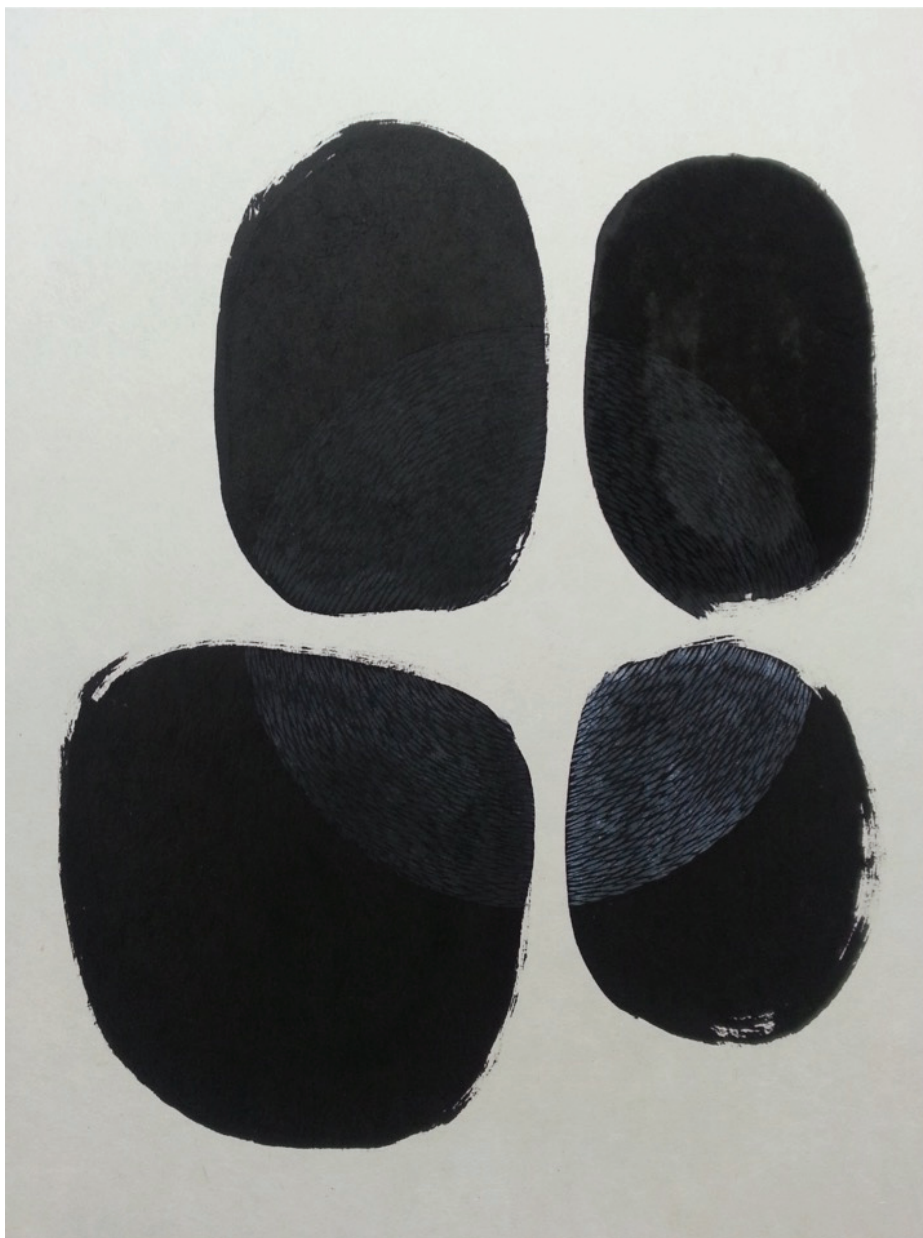
【작품 1】 관계 01 [Large], 순지에 먹과 물감, 110x8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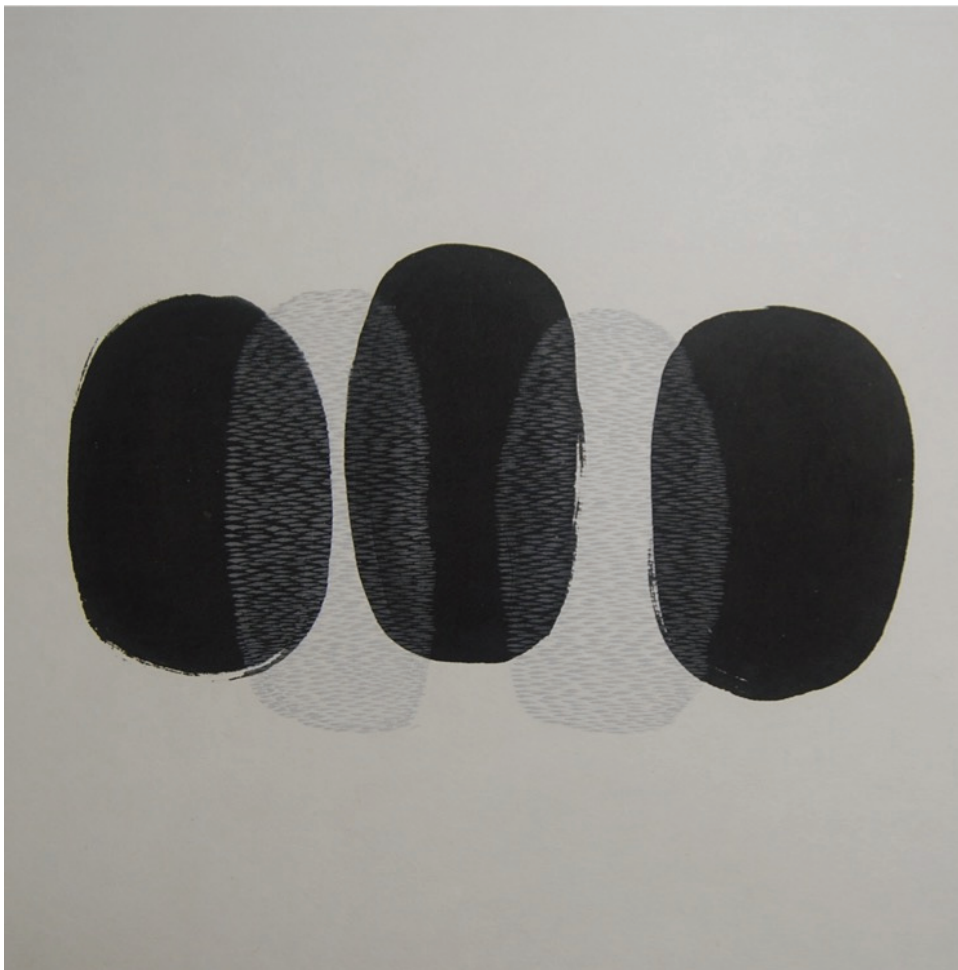
【작품 2】 관계 02 [Small], 손지에 먹과 물감, 18x18cm, 2015



【작품 3】 어린이들 02,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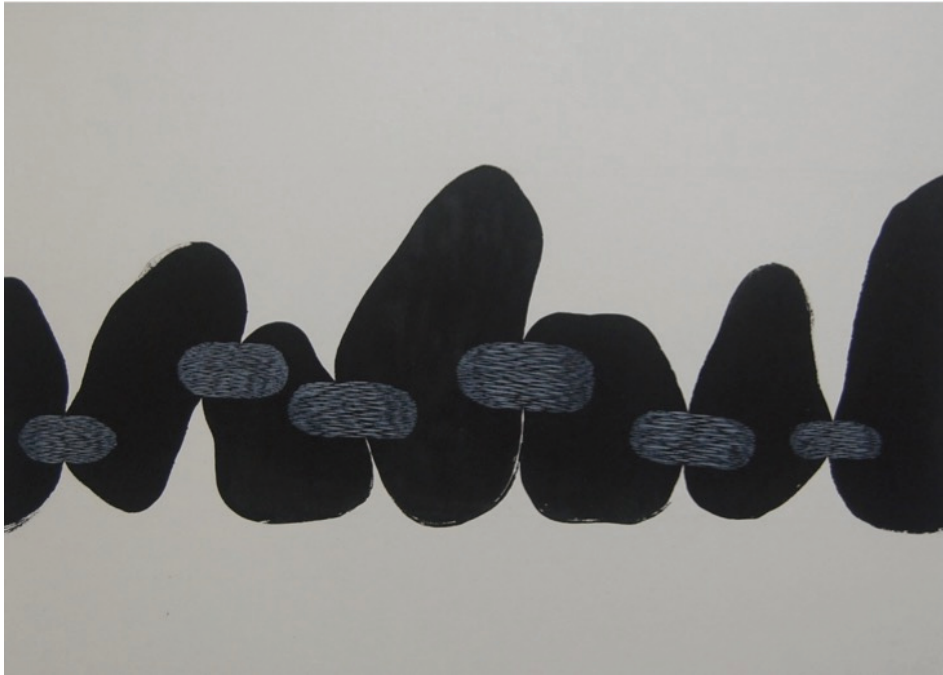
【작품 4】 차이에 의한 관계 01, 순지에 먹과 물감, 44x34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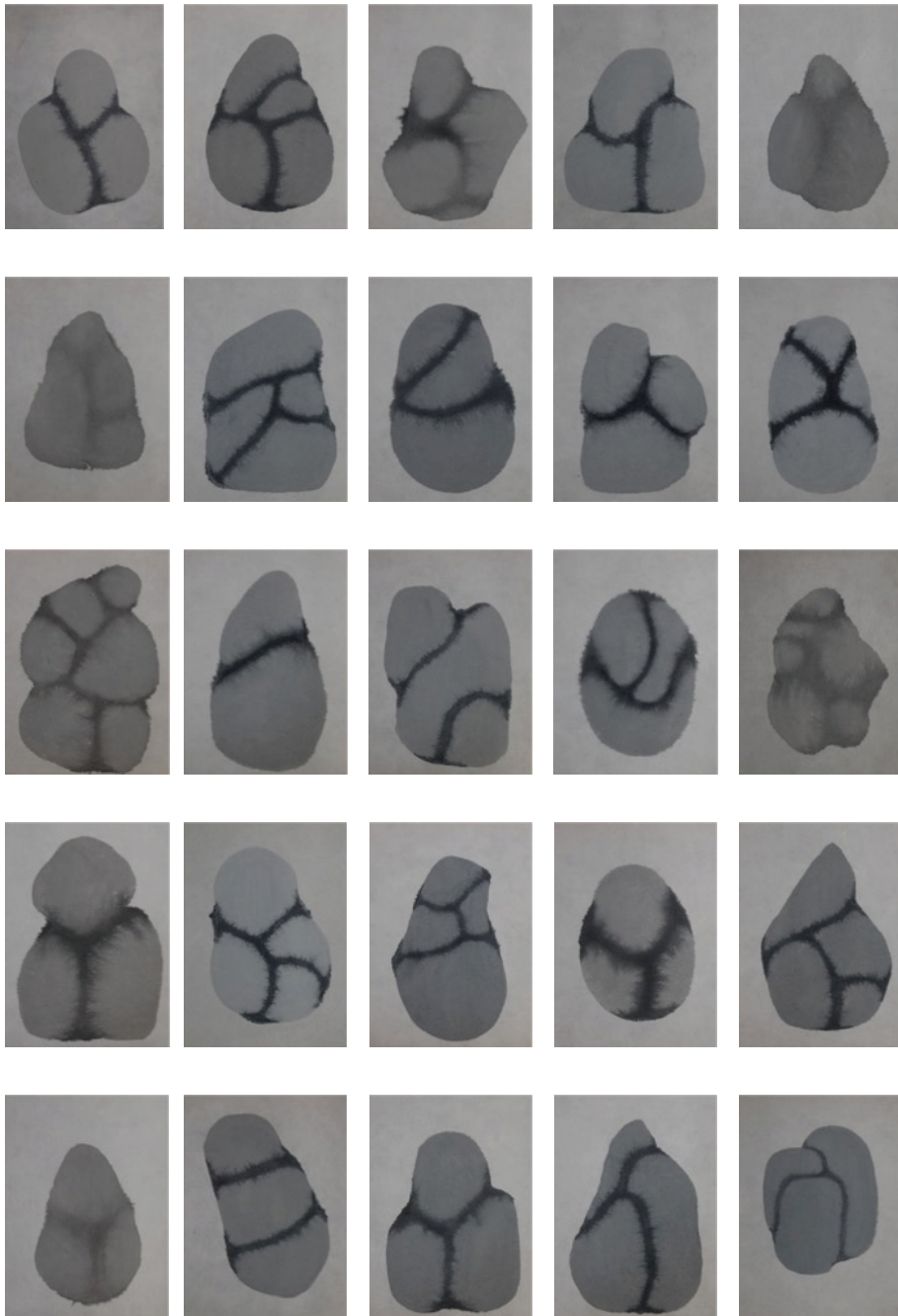
【작품 5】 새로운 우정,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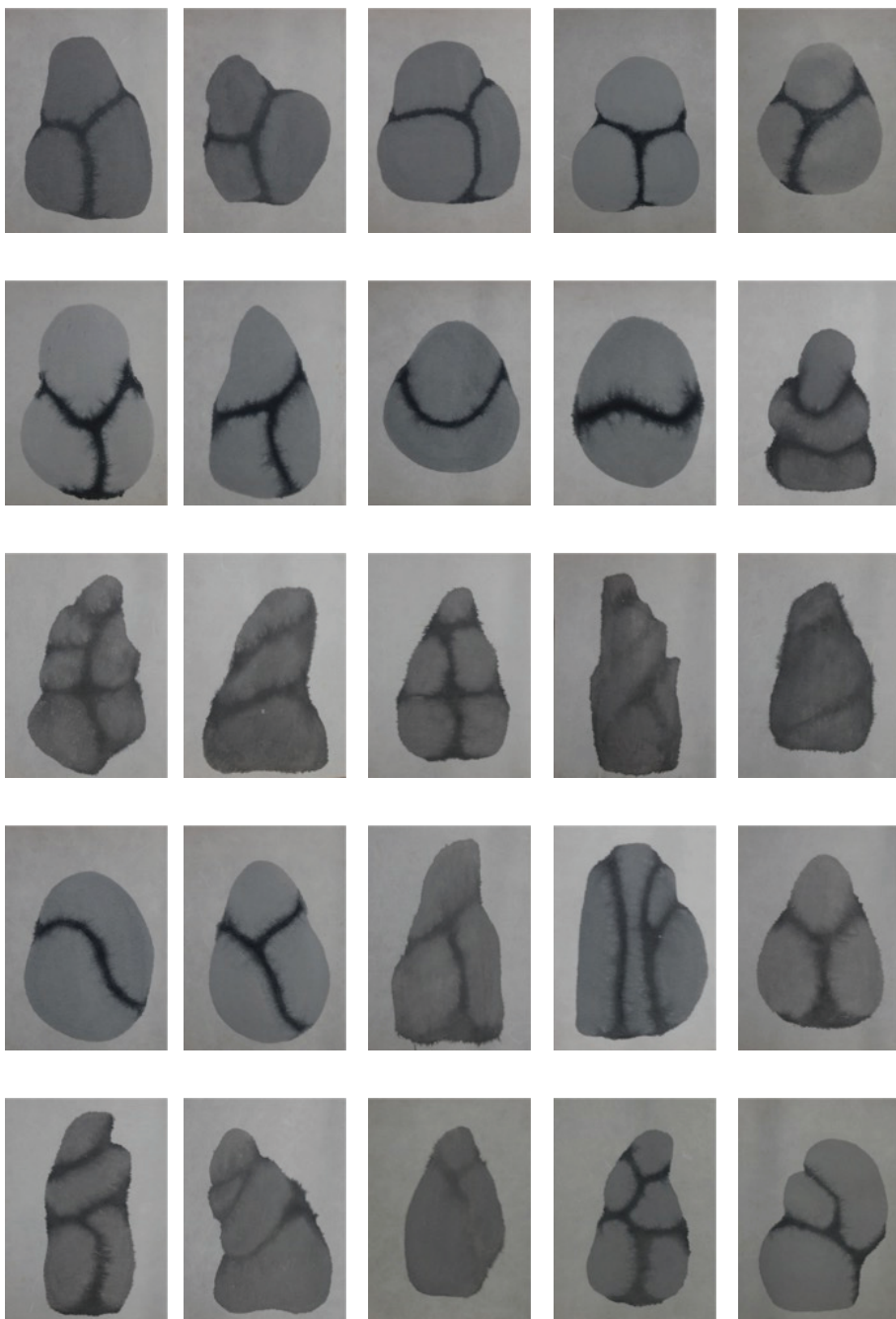
【작품 6】 엄마, 순지에 먹과 물감, 50x5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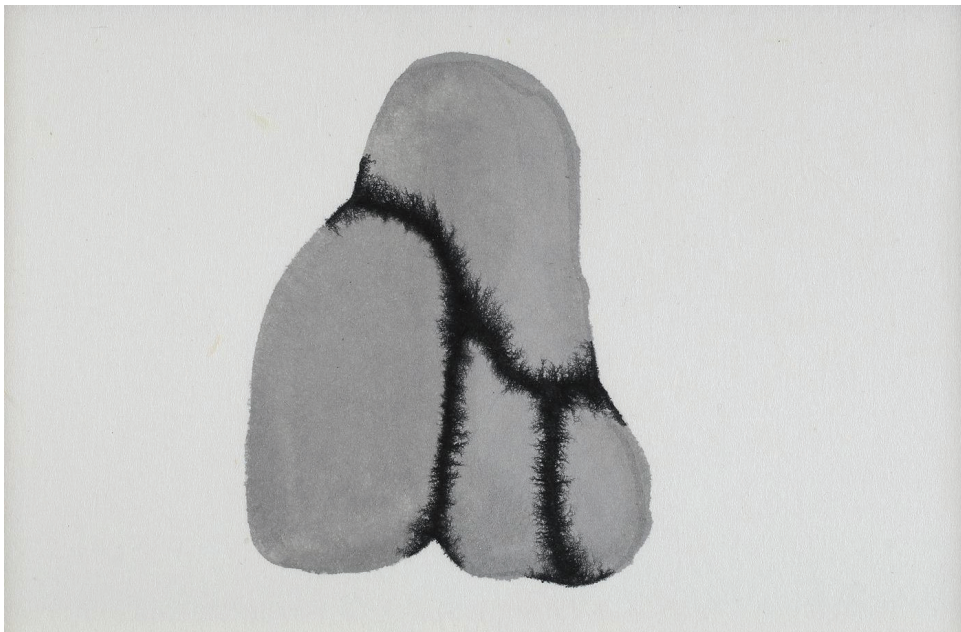
【작품 7】 경쟁, 순지에 떡과 물감, 80x11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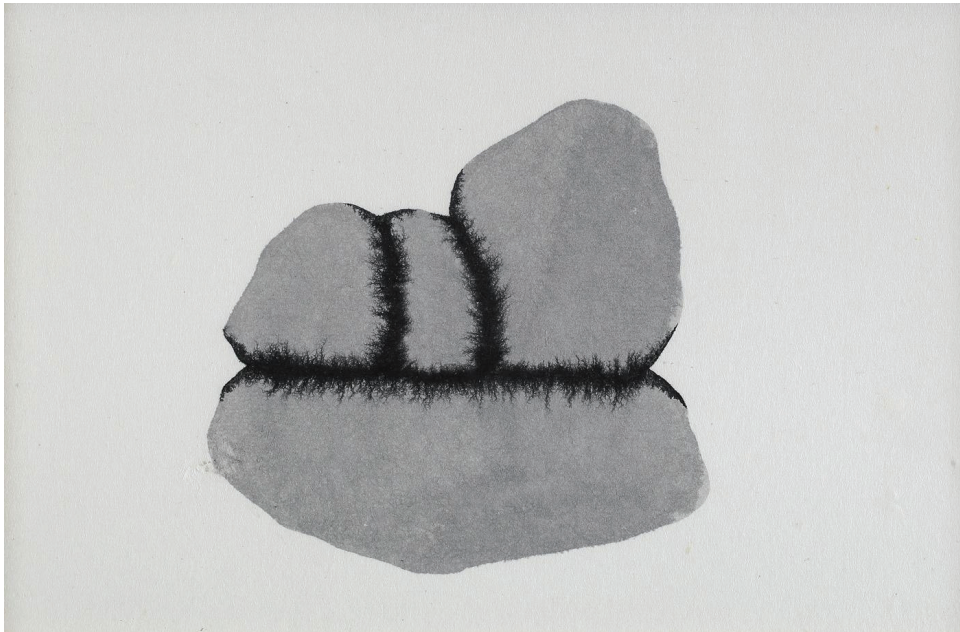
【작품 8】 동호회, 순지에 먹과 물감, 11.5x9cm (50 개), 2015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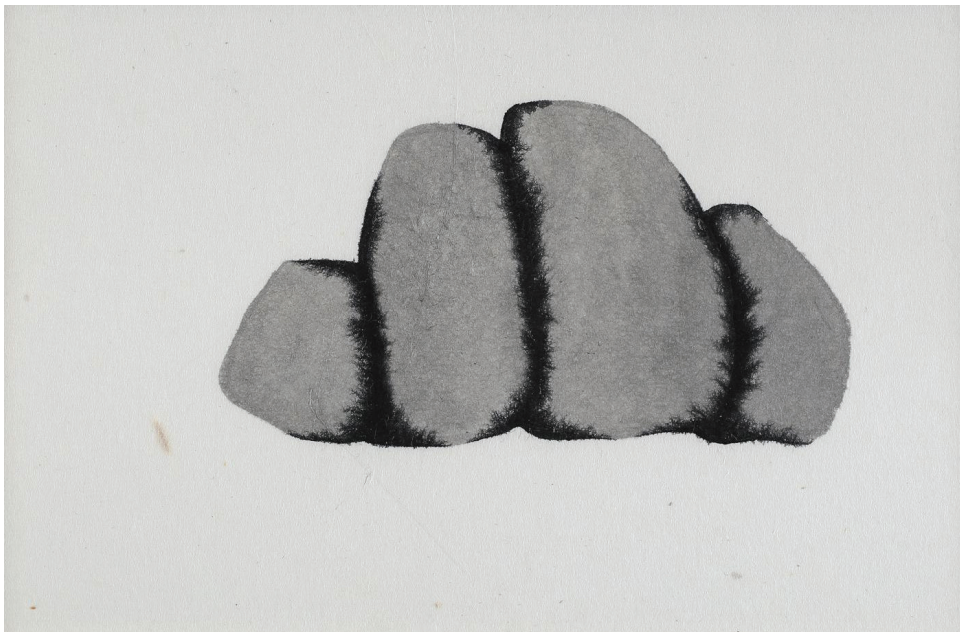
【작품 8】 동호회, 순지에 먹과 물감, 11.5x9cm (50 개), 2015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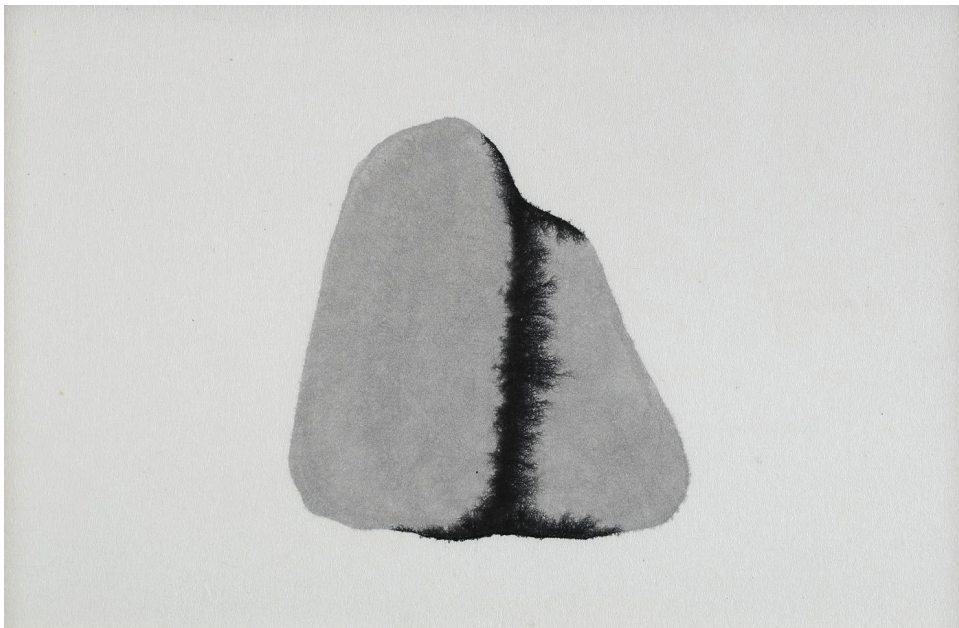
【작품 9】 가족 01,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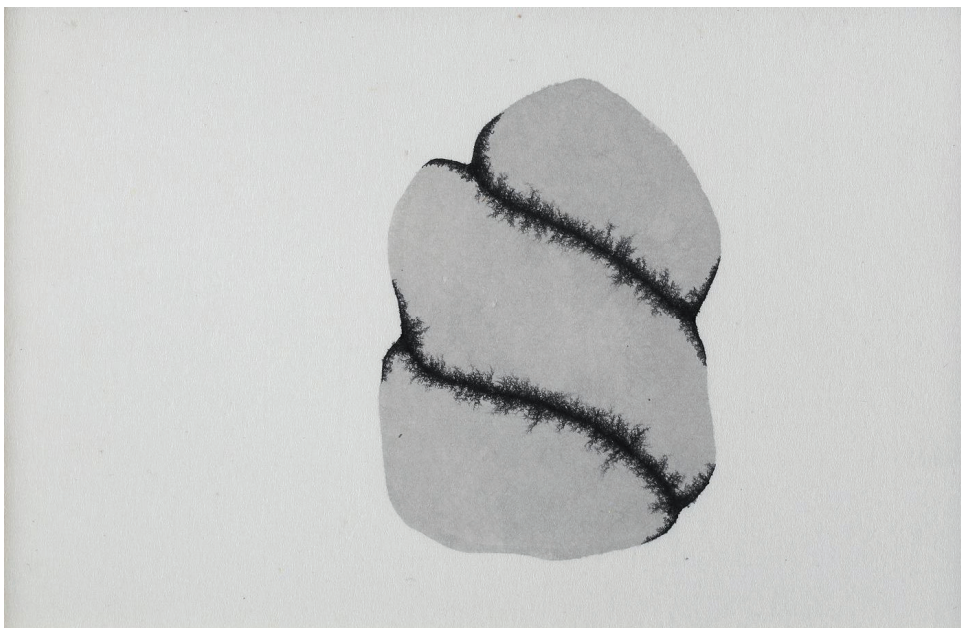
【작품 10】 가죽 07,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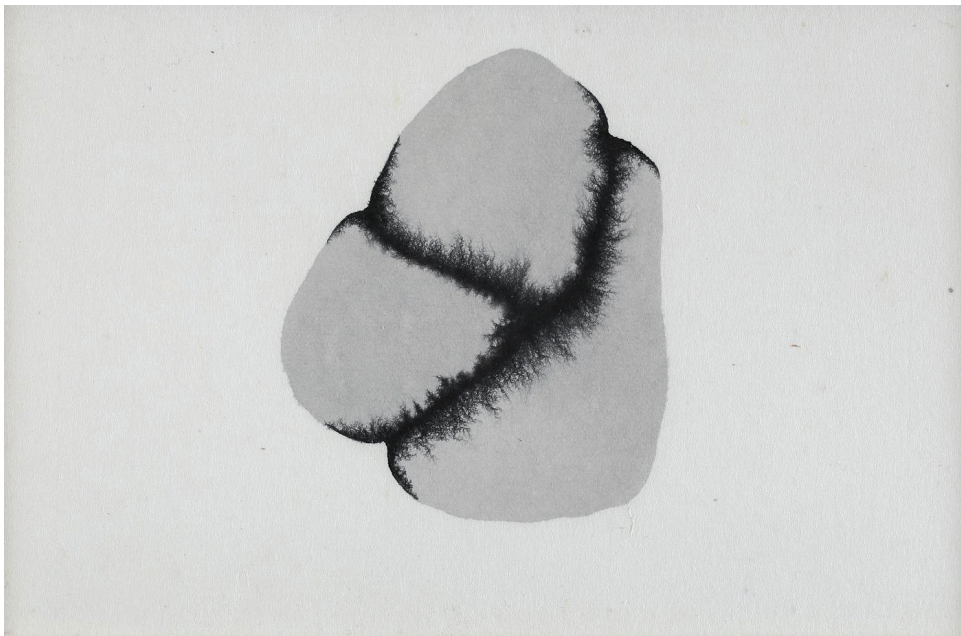
【작품 11】 가족 10,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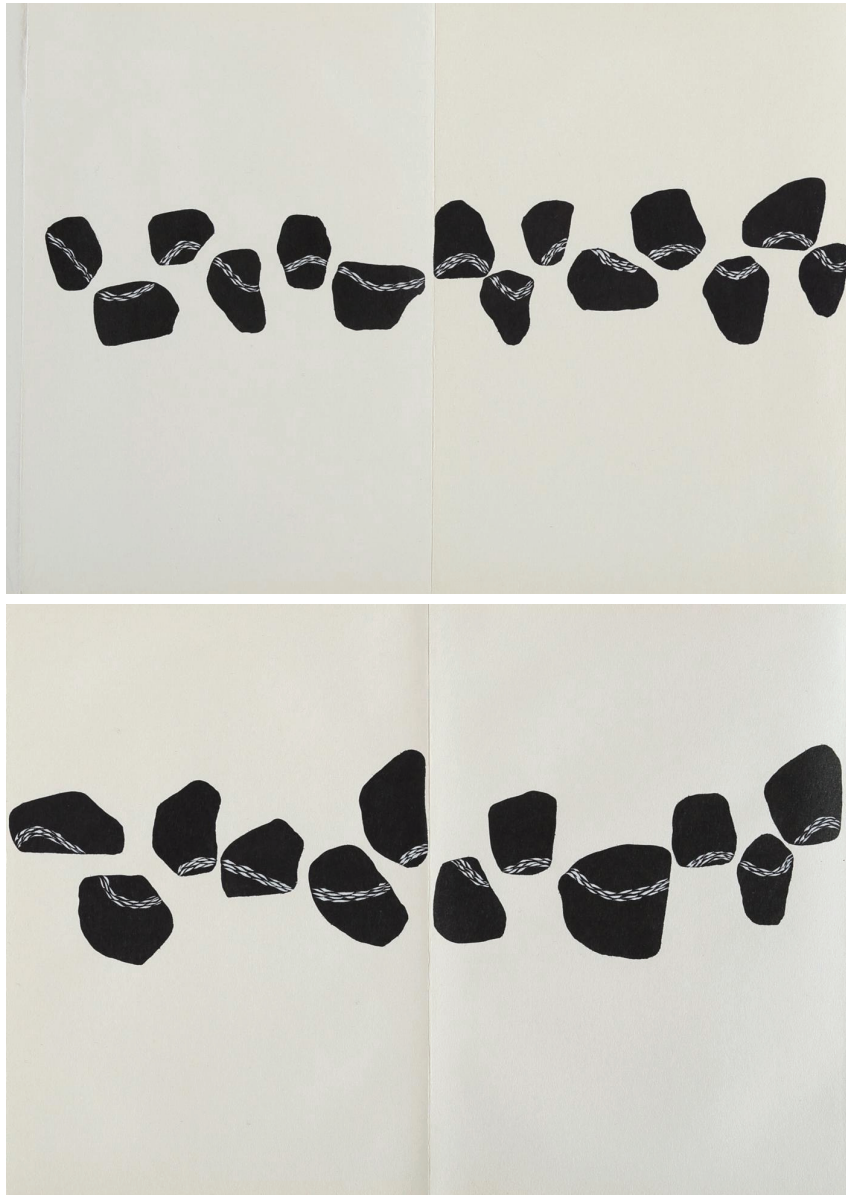
【작품 12】 부부 01,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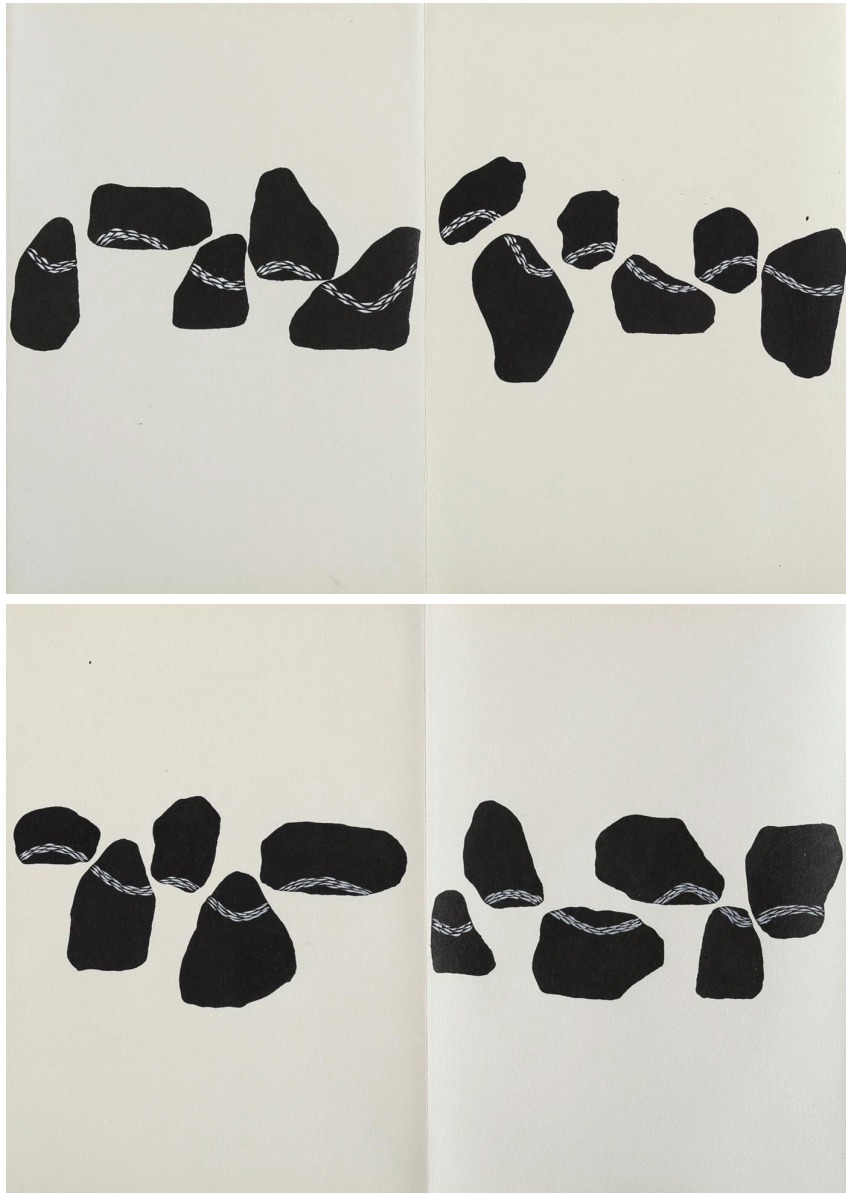
【작품 13】 형제 03,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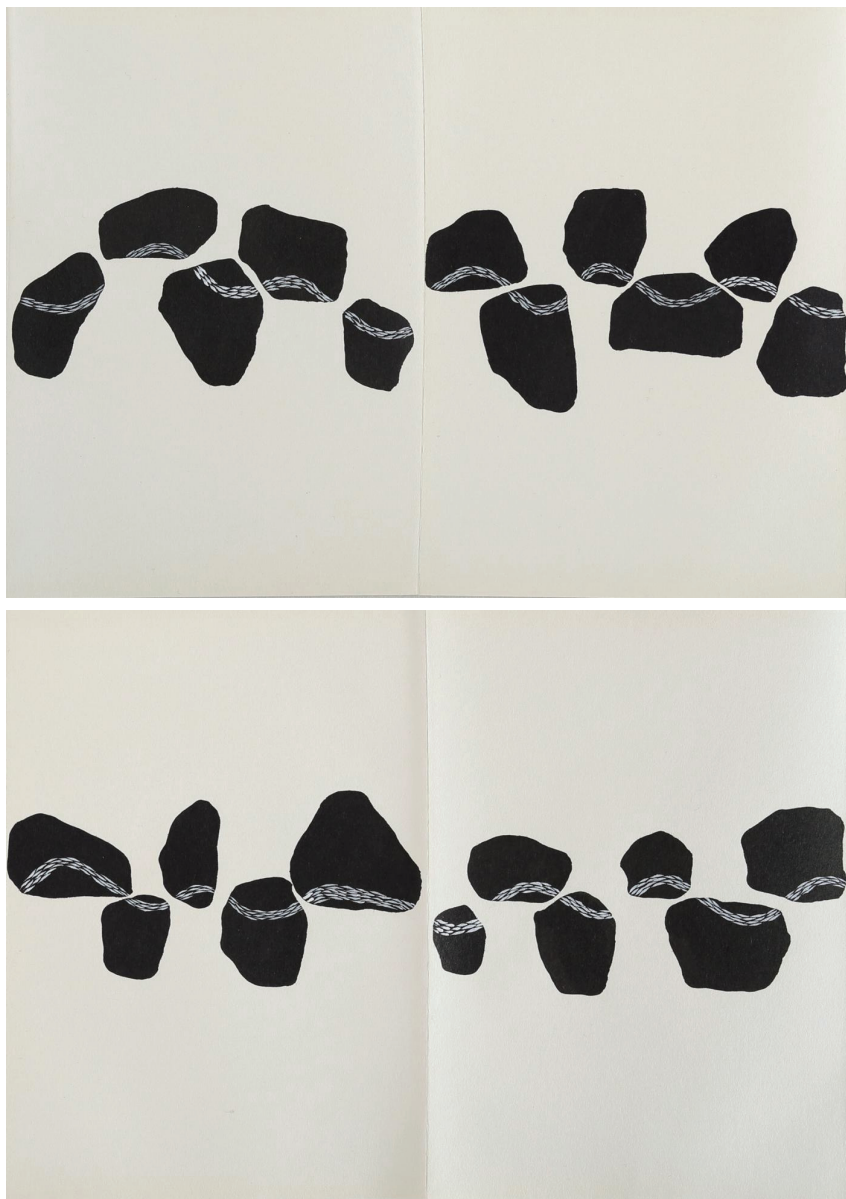
【작품 14】 형제 04, 순지에 먹과 물감, 26.5x17cm, 2017



【작품 15】 줄다리기, 순지에 먹과 물감, 24.5x391cm, 2017 (Part 1)



【작품 15】 줄다리기, 순지에 먹과 물감, 24.5x391cm, 2017 (Part 2)



【작품 15】 줄다리기, 순지에 먹과 물감, 24.5x391cm, 2017 (Part 3)

ABSTRACT

A STUDY ON EXPRESSING KOREANS' CONNECTIONS THROUGH ROCKS AND LINES

-- Focusing on the Works of Tiffani Claiborne --

Tiffani Claiborne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selected works of Tiffani Claiborne from 2013 to 2015. It analyzes how one can see who Korean people are by looking at the emphasis they place on the connections they have with others. This is accomplished by looking at th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works.

When an artist approaches a canvas in an attempt to paint or draw a portrait of an individual, the first thing they must do is recogniz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qualities of the subject that they are attempting to depict. They must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make their subject different from other subjects. In addition, to properly capture the spirit of their subject, an artist must also know what is

important to the subject they are painting. In other words, they must have some idea of the heart of their subject.

In Western art this can be accomplished by studying the facial features and other intricate physical details of the subject. For example, facial expressions and personal style are used as keys to find out more about a subject to be paint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n Western culture individuals focus more on making their own unique qualities stand out. They want to present their unique qualities to others.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ith Koreans. In Korean culture the focus is placed more on the connections one has with others instead of one's personal qualities. So, in order to properly depict a Korean, one must first look at the connections that make Koreans who they are.

One of these connections is the connection that Koreans have with nature. It is a connection that has existed for hundreds of years. In truth, the principle that human beings have a special connection with nature is a belief held by most Asian cultures. While it originated from the beliefs presented in Confucianism, it is still an integral part of Korean culture. The strength of this connection can be felt when Koreans express how they feel when looking at a landscape painting. Some express a feeling of depth and intensity, while others become overwhelmed with emotion and simply stand gazing at the piece. With this in mind, nature can be seen as one aspect that truly represents who Koreans are.

The other connections that are important to Korean people are the ones they have with other individuals. These connections encompass every aspect of their lives and determine how they respond and operate in society. Each connection serves as a doorway into understanding who Koreans are as a people. One of these connections is the family connection, which shows the importance of knowing one's roots. This connection is one of the first connections that Koreans begin to focus on in life, and it continues to remain an integral part of

their life as they grow. Along with family connections, there are connections with friends, connections with coworkers, connections with those older and those younger, connections with superiors, and the list goes on. These connections also result in an interdependence being formed with the Korean people.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se connections are not looked at in the same way in Western society. This is because in Western society a person is not defined by his/her connections. Instead, as mentioned above, they are defined by their individuality. However, in Korean culture there are specific rules that are attached to these connections that must be followed. So, as one looks at each of these connections, the foundation of who Koreans are is seen and the driving force of Koreans also comes to view.

The works that will be analyzed in this thesis focus on these connections in order to reveal who Koreans are as a people. These connections are depicted using the beauty of the line, which is an important aspect of Oriental Painting. The lines are painted in a repetitive manner to show movement and the tendency of Koreans to move together, thus emphasizing how strong their connections are. Instead of focusing on the facial features of Koreans, rock formations were chosen as an aspect of nature that represents the strength and fortitude of the Korean people. Using rock formations that are painted with 먹, another important material in Oriental painting, and the beauty of the lines, various connections that are an integral part of Korean society are expressed through the pieces. Thus enabling the viewer to see Koreans through their connections.

Upon completing this thesis, more research into the mind of Koreans and the depth of their connections will be conducted in order to further the progression of this series. This will improve the effect of the artwork as well as improve the strength of the visual message. By continuing this research and this series, the uniqueness of the connections Koreans have with each other will be spread to other

cultures and used as a catalyst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mind and hearts of Koreans. This will in effect aid in culture exchange and deepen relationships with others.

Keywords: Connection, Interdependence, Collectivism,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The Connection people have with nature, Confucian Ideas, Rock, Line

Student Number : 2013-23885